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中國國民黨宣傳部 重大聲明을發表

敵의消滅을期함은今日의國是

國民의精神은極沈着

【南京二十日發同盟】國民黨中央宣傳部는 二十日 左와如히 重大聲明을 發表하야 注目을 惹起하엿다

一、我國家主權은 對內的으로는 絶對이며 對外的으로는 獨立을 主로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中國은 國家를 統一完成하야 政令은 全國에 普及하고 겨우 西北小地域의 同胞가 強隣의 苦境으로부터 脫出치 못할뿐이다 此는 이미 國民의 기피 認識하는바로 이것이國家統一을 妨害하고 民族生存을 妨害하는것은 疑心할수업는바이다 그것이 如何한 名稱을 가젓드라도 國家의 主權을 冒瀆하고 政府의威信을 害함은 모다 吾人의敵이됨으로 어데까지던지 撲滅을期하는것은 今日의 國是이다

二、南京에서 進行中인 日中交涉은 이미一個月을 지낫다 政府는 同交涉을 平等과 道理로써 交涉할것을 再三表明하엿다 近來日中交涉에 對한輿論은모다 中國政府가 可能한限 責任을 다한것을 認定하고 日本이 마침내 中國의立場을 諒解하고 修交의 軌道에 到達하기를 希望하고잇다 此種理論은 中國國民의 心理를代表한것이다 그리고 國際間의一致된合理的 判斷이다 日中交涉의關鍵은 完全히 日本側에잇다 最近僞匪軍이大擧하야 邊境을侵入하야 널리國民의感情을 激發하야 綏察軍事에對한 關心은 日中交涉보다 훨신만하여젓다

三、綏東의 情勢가 緊張하엿슴에도 不拘하고 國民의感情은 極度로 沈着하다 今日의綏東問題는 簡單明瞭하게 侵犯者가 何者임을不問하고 國家民族의敵이다 數日來匪軍은 屢屢侵犯하엿스나 隨時敗退하여버렷다 이는前線將士의 英雄的行動에 依한것이다 此事實에鑑하야 國民이 沈着希望히 步調를 가티하야 政府를 信任하고 國難打開에 向한다면 匪軍의撲滅은容易한일이다 綏察問題의 警報가傳하매 民衆의前線將士에 對한 物質的精神的 支援은 絶對的임으로 國家의前途는 樂觀할수잇다 玆에中央黨部는 隨時公布한 募捐運動遂行辦法에 則하야 全國民이 國家에貢獻하기를 希望한다

中央宣傳部聲明 對日感情煽動

中國側綏遠問題責任轉嫁로 南京交涉에重大暗影

【南京二十日發同盟】中央宣傳部의聲明은 國民黨部의態度를 內外에明示한것으로黨이公式으로綏東事件의背後에日本이잇다는印象을 強硬히認識시키며 國民의對日感情을煽動한點은 今後排日抗日風潮에 一層拍車를加한 結果가되고 一方該事件發生으로南京交涉은이미重要性을失하고잇다고 闡明하는것은 日中交涉에對한中國側의不誠意를 如實히暴露한것인데 中國側은 綏遠問題의責任을 日本에轉嫁시킴으로서 南京交涉에當할라고하는事實이 明白하므로 今後交涉에多大한 暗影을投할것으로推測되고

交涉休止狀態 高氏歸京까지

【南京二十日發同盟】亞洲司長高宗武氏는 二十日午前十時私邸에서 須磨總領事의 來訪을 求하야各種懇談을 하엿다 高司長은 秘書役을 帶同하고 飛行機로平地泉歸化城方面綏東一帶의 實情을 調査하기爲하야 急行할豫定이다 高司長은 綏東地方에서蒙古軍侵入實情을 詳細視察함과同時에 政府主席、傅作義氏外各將領과 會見한後 二十三日南京에 歸還할豫定인데 歸途洛陽에서 蔣介石氏를 訪問하고 一切를 報告하야 重要指示를 仰請할터이다 南京歸還後다시 此를 張群部長에게報告하고 關係首腦部와 協議한後 具體案을 決定하야 마침내 日本側에 對하야 中國의 態度를 表明할것으로推測되여 日中交涉은 高司長의歸京까지에는 全然休止狀態로 되엿다

廣東廿三團體 綏遠後援會組織

【廣東二十一日發同盟】余漢謀、李宗仁、白崇禧의 傅作儀應援電에 뒤이어 廣東省市黨部에서 主催한 綏遠前線將士慰勞大會는 二十日午後三時부터 開催되엿는데 各界代表五十名出席下에 前線將士에게 激勵電을 發하는同時에 二十三團體를 代表委員으로한綏遠政府守都後援會를 組織하고義捐金募集을 決議하엿다

傅氏勸告電에 德王一笑

【北平二十日發同盟】傅作義氏는 蒙古軍이 十五日 陶林에서 攻擊의 戰端을 開始하자 即時百靈廟德王에게 「內蒙의時局은 貴下가 同方面의 支持를바더 察哈爾省의六旗를 掌中에노흐려는데서 混亂하는狀態를呈하게되엿다 貴下는速히 이事態를察哈爾에 返還하고 中央의 命令에 服從하기를勸告한다」는 電報를 發하엿는데 德王은 이것은 全然傅自己의 非를隱避하는것이라고 一笑에附하엿다

紅格爾圖戰鬪에서 綏遠軍死傷百四十名

【北平二十日發同盟】紅格爾圖의綏蒙戰에서 綏遠軍의 損害는 極秘에 附하여잇스나 十九日까지의 戰鬪에서 死傷者百四十名을 내인것이 判明되엿다

綏遠軍續續後退

【上海二十一日發同盟】平地泉來電에 依하면 綏遠軍은 十八日午後以來續續後退하야二十日午後로서 거이全軍의 撤退를 終了하야 紅格爾圖에서 綏遠軍總指揮에 當코잇다 彭毓斌氏도 十九日夜平地泉에 歸還하얏다 前線에서 敗退한 負傷者는 夥多하야 續續平綏線으로大同野田病院에 運送되고잇다

罷業青島에도波及 豐田紡織職工退却

【青島二十日發同盟】二十日午前十時頃市街西方豐田紡織職工은工場退却을 開始하엿다 上海紡績青島工場職工도 動搖하기 始作하야 警戒中이다

豐國罷業惡化 全工場閉鎖

【青島二十日發同盟】豐田紡의怠業職工은 去益惡化하야 其鎭撫에對하야 公安局巡警應援下에今日午後全工場을 閉鎖하엿다 內外棉當局 紡日清紡은 怠業狀態로 操業은 繼續하고잇스며上海紡公大長崎富士同興紡은 平常時대로操業하고잇다

北中서古田少佐等 中國兵에게拉去

日本人十名과同時에

【山海關二十一日發同盟】二十日午後七時頃 灤縣部隊香岡大尉同地에向한 山海關守備隊長古田少佐、副官松尾新一大尉灤縣守備隊長永松享一大尉 高木憲兵軍曹末松黑雄主計는 列車로灤州에赴하는途中 同治 開平間에서 冀東保安隊第五、六中隊에서 援兵車가 包圍되여 列車를停車하고 同乘한日本人十名과 共히 拉致되엿다 그리고 急報를接하고 沿線日本部隊는 各機關과 協力搜査中이다

平南道事務檢閱

大竹內務局長以下廿三日發

平安南道行政事務檢閱은 大竹內務局長檢閱官下에 四班에分하야(第一班河村地方課事務官 第二班梶川農村振興課事務官 第三班高橋務課事務官 第四班伊藤警務課長 北村同課事務官)二十數名이來二十三日午後十時五十五分京城發로 新安州를거쳐 同道管內各行政事務를檢閱하고 十二月三日歸城할豫定이다

第二次五相會議 二十七日에續開

議會制度改革及地方制度改革의審議方針決定

【東京電話同盟】地方制度並議會制度改革에關한 第三次五相會議는 二十日午後二時부터 內相官邸에서開會하고 潮 林 島田 小川 永田五閣僚가 出席하야 今後審議方針에對하야

一、議會制度改革에關하여는 議院制度調查會와 倂行하야 相互連絡協調를 保持하면서 審議를進涉할것

一、地方制度도 이와倂行하야隨時審議를 行할것

等二方針을 決定하고 爲先議會制度에關하여는

一、審議資料는 從來衆議院에提案된 各種議會制度改革에 關한法律案及 決議等을 大體로研究할것

一、研究範圍는 當面問題로 되여잇는 會期問題에 局限하지안코 全院委員 繼續委員 常置委員等의 各種制度에對하여도審議할것

但 各閣僚도材料를 提出할것

一、五相會議에잇서서 成案을어든것은 이를議院制度調查會에提示하고 또同調查會에서 結論을어든것은 五相會議에서도審議하야 相互緊密한 連絡을取할것

等審議方針을 決定한다음 地方制度改革問題의 自由討議를 開始하야潮內相으로부터先般地方長官의答申을 求한 地方行政改革에關한 意見書要綱을 提示하고島田農相으로부터 農林行政의立場에서 地方行政機構改革에關한 意見을 述하고 또 小川商相은『產業行政의 立場에서 보면 現在의 府縣의 分轄은 너무 細密히 地方實情에 適合치못한 傾向이잇다 따라 此際道府縣우에 綜合機關을 州又는道廳等을 設置하야 府縣과 市町村部落과의 間에 中間機關을設置하고 나아가府縣의 配合도考慮함이如何하냐』는等의 見解를披瀝하고 種種意見交換을 行하엿스나 何等結論을 어지못하고 結局 地方制度改革目的으로

一、各地方의產業上 其他特殊性의 發達을 圓滑의 進展에順應하도록 改革의實現을 圖하기爲하야 現行地方行政制度의劃一制를打破하고 現在의各機關各系統間에잇서서 分課對立의 弊害를 除去하야 綜合的地方制度의 確立을 期할것

地方發展을爲해 劃一制度打破

內務當局의具體方針

【東京電話同盟】地方制度改善에關하야 二十日五相會議에서 緊急을要할 改革案으로서 地方의特殊情勢發達을 助長시키기爲하야 現行地方行政上에잇서서의劃一主義를 打破함과同時에 分科對立의 弊害를 除去調整하고綜合統制를 圖하기로 決定하야 具體案樹立을 早急히하기로되엿는데 內務當局에서 講究하고잇는 具體方針은 大體左와如하다

▲地方行政의劃一制打破

一、六大都市等重要都市에 對하야 特別市制를 制定할問題

一、地方廳에잇서서 總務、經濟、警察、學務等 四部制로하는劃一制를打破할問題

一、產業經濟交通敎育等의 地方行政上同一系統에屬하는數府縣을區域으로하야 聯合을 結成하야 特殊行政의 伸張을企圖할問題

一、分科對立의 弊害를 匡正하고、市町村等公共團體及產業團體調整에關한 問題

가、各種產業團體의 統制綜合機關을 樹立하는案

나、市町村等의 自治團體區域內에잇서서의 產業團體를綜合統制하고 命令監督系統을 單一로하는問題

다、市町村役所에 產業團體統制機關을設置할案

一、中間機關設置의問題

一、內務農林遞信諸省等主要官廳의地方行政에對한 命令監督을統制하는問題

一、市町村區域內에 잇서서部落의 綜合統制에關한 問題

潮內相談

地方制度改革의 目標를 劃一制打破及 分科對立의 弊害除去에 두기로決定한것은 今日會議의 收穫이다 今後次次具體的問題에對하야 檢討를進行할것이다 分科對立의弊는 府縣을爲始하야 市町村會 役所經濟團體等현저히 割據하고잇는 實例가만흐므로 綜合的自治機構를 만들고자 생각한다

英國汽船檢索은 絶對로不容認

바르셀로나港의封鎖에對한 英國政府의要求條件

【倫敦二十日發同盟】西班牙叛軍政府로부터 바르셀로나港封鎖의 通告를 接受함과 同時에이든英國外相은即時 西班牙駐剳大使리르氏에게 訓令하야 叛軍政府에 對하야 다음要求를 提出하엿다고 確聞한다

一、英國政府는 叛軍政權을 아직交戰團體로서 承認지안코따라서 叛軍이 公海에서 英國船을 臨檢搜索할것은 絶對容認치안는다

一、바르셀로나市其他 危險地域으로부터 英人居留民을 撤收하나 그間猶豫期間을要求한다

一、또外人을爲한 바르셀로나市附近에 『安全地帶』를設定하야 海上船舶에對하야 一定한碇泊所에서는 安全을 保障하도록 要請한다

英國外務省當局은 二十日夜強硬決意를 表明하고 아직交戰團體로서 承認치안흔以上 英國政府로서는 國際法原則에基하야領海外에서 英國船의 臨檢拿捕는斷乎拒否할意를述하고잇다倫敦外交界에서는叛軍政權은結局英國政府의 主張을 容認하야 바르셀로나附近에 安全地帶를 設定할것이라고觀測하고잇는데 一方公海上에서 叛軍軍艦이 英國船을臨檢搜索하는境遇에는 重大한國際紛議를惹起할 憂慮가잇스므로結局英國政府는 叛軍을交戰團體로서 承認할것이아닌가推測되고 이든英國外相은 十九日下院에서『交戰團體로서承認함과 政府로서承認함과는 大端히相違하다』는 旨를言明한것도 這般事情을示唆하는것이아닌가한다

人事·集會

◆大野政務總監 渡東中來二十八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歸任

◆方應謨氏(本社社長)社務를帶하고 約二週間豫定으로二十一日午前八時二十分京城驛發列車로關北地方에旅行

◆金炯元氏(本社編輯局長)同上

◆方建斗氏(本社販賣部長)同上

◆洪淳五君과金玉振孃은 十一月二十一日 光州府內春木庵에서結婚式을擧行

如何든交涉은 最後段階에到達

有田外相閣議에報告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二十日 閣議席上綏遠問題及 日中交涉의 經過에 對하야 左와如히說明을 試하엿다

一、日中交涉은 去十日第七次川越張群會談以來 그대로 되여왓는데 近近다시 第八次會談을 行하기로되엿다

中國側은 最近防共、北中兩重要點에 對하야 相當히 日本의眞意를 諒解하고 어느程度日本主張에 接近하여온 傾向이잇서一概로 悲觀하여버리는것은 早計이다 日本側은 어데까지던지 當初의 根本方針을 徹底히할생각이다 最近綏遠問題發生을中國側은 日本側의 使嗾에依한것이라는 見解를가지고 日中交涉中止說까지 出現하게되여 全國的排日化를 煽動하야 事實上그運動은 輕視할수가업다 國民政府가 如何히 이動搖를日中交涉上에 利用할지不明하나 十八日蔣介石氏와協議하야 南京에歸來한 高宗武亞洲司長은 蔣介石氏의 意向을齎來한것이라고推察됨으로 近近實現될 川越張群第八次會談에서中國側의 眞意가 判明될것이다 如何튼지 交涉은 最後的段階에到達하고잇다

朝鮮國境警備費 剩餘金에서支出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滿洲國의共匪討伐의 進捗에伴하야 共匪가 朝鮮國境附近에 殺到하는狀態임으로 國境附近一帶의 治安을維持하기爲하야 警察官의 應援配置를할 必要上 그所要經費七萬九千九百九十圓을 朝鮮總督府特別會計剩餘金中으로부터 支出하기로 決定하고 勅裁를거처二十一日官報로 發表하얏다

等을 協議하고 次回는 來二十七日午後三時부터 內相官邸에서開會하야 協議에따라 具體的討議를 進行하기로하고 同四時十五分에 散會하엿다

德王卓王連名 國府에長文通電

【北平廿日發同盟】蒙古軍總司令德王은 副司令卓王과 連名으로 十九日國民政府首席林森氏 軍事委員會委員長蔣介石氏 軍事政務委員會委員長宋哲元氏其他各省長官에게 長文通電을 發하야 今次蒙古軍蹶起의 根本主旨를 明白히하엿다

通電要旨[illegible]

過去二十年間에 南京政府의 政治的壓迫과 地域的으로蒙古侵蝕이如何히 蒙古民衆을 窮迫케하엿는가 略述한後

一、綏遠省政府는 約에反하야蒙古民衆으로부터 徵稅收入을蒙政會에交付지안흘

一、蒙族內部의 不平分子를 使嗾하야 蒙政內訌을發生시켜 多數蒙古人을 殺戮한것

一、蒙政會는 全蒙古統治의 最高機關임에도 不拘하고 此를消滅코자 中央에 事實을 捏造하야 [illegible] 蒙古民衆을 重大危機에 陷케한 事實에 鑑하야 蒙政會는 綏遠政府에對하야

一、察哈爾右翼四旗를 即時蒙政會에 返還시킬것

二、各地軍事施設을一切撤廢할것

三、蒙政會保安隊로부터 沒收한 武器를 即時返還할것

四、蒙政會에 未交付金二十萬元을 即時支拂할것

五、過般來氏變을發生시킨蒙政會叛逆者를 即時引渡할것

等要求를提出함에對하야 何等回答이 업시 依然蒙古侵略의步를進行하고잇스며 綏遠省은 實로蒙古의發達을妨害하야 蒙古民衆의生活을 威脅시키라고하는것이故로 全蒙古各盟長、旗長等과 討議한結果 德王은 蒙古軍總司令에 卓王을副司令으로 綏遠省掃蕩의重任을負擔시켜서 蒙古健兒를動員하야 義師를進行한것이다 我等은 蒙古人에依한 完全한保護統制를 圖하는것이므로 中央으로부터離脫을 圖하는것이아니오 또蒙漢兩民族의 鬪爭도아니다 다만綏遠을 掃蕩할뿐이다

蒙政會委員長兼蒙古軍總司令 德王

同副司令 卓王

後年度財政計畫 大體로輪廓確立

【東京電話同盟】馬場藏相은 明年度豫算編成에 當하야 特히歲出豫算에 잇서서의 國防計畫과歲入豫算에 잇서서의 公債發行額、租稅、官業收入等에 對하야後年에도 五年乃至七年程度에亘한 財政上의 豫想을 세워서國防과 財政과의 調和를圖하려고 希望하고잇는데 이미 大藏事務當局의 後年度 財政計畫에 關한 調查도 大體豫想이 섯스므로 近近열릴 豫算閣議席上에서 明年度豫算 大藏省查定案提出에 附隨하야 後年度財政計畫의 輪廓을 說明하고 軍部兩相을 비롯하야 各閣僚의 諒解를 求하기로되엿다

八面鋒

◇ 언제라든 補給金 一千二百萬圓은 五百萬圓의 繰入金 納入으로 妥協。

◇ 『三億三千萬圓이나 되는 朝鮮豫算에서 一千二百萬圓이란 補給金은 잇스나 업스나 한 일이지만。

◇ 구태여 이것을 存續시키고 內容으론 五百萬圓을 一般會計에 繰入시키는것은 植民地에 對한 影響問題때문이라고。

◇ 補給金의 有無로 植民地의 影響이 무엇?

◇ 그도 全廢案의 折半이 되다든지 三、四割이 되다면 모르지만?

◇ 차라리 補給金도 繰入金도 업시하고 財政을 完全獨立하야 加俸 가든것을 撤廢함이 可。

◇ 問題만튼 咸慈線道路用地畢竟 二十五日로써 收用令 實施한다고。

◇ 公平한 收用令은 可。그러나 果然 이번 查定은 萬人이 肯定할 公平일가。

옷감 韓靑商會 京城桂洞町 電光一三九九番

羊皮類廣告 中國人羊皮專門商 寶成商店 謹告

好職業 福藥本舖 大阪天王寺區寺田町

新築家屋賣買開始 朝鮮建築社 電話本局五五六二番

年賀狀名刺特價奉仕 東和印刷所地方部 京城府中林町三二五ノ五九 振替京城二三五四八

科咽喉鼻耳 永日美 醫學博士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二六六五番 備完室院入

海陸物產 皮物鳥獸藥種果物賣買委託販賣業 東大門商會

商業界 第二輯 ▼商店을經營하시려는분은반드시읽어야할! ▼朝鮮에하나박게업는商業指導理論雜誌! 定價十錢 發行所 朝鮮商美社

再版 鑛山發見及經營法 附鑛業令 附 朝鮮鑛山及林業分布圖 朝鮮土性及地質略圖 貳幅 發行所 三文社

水玉產婦人科 平壤府水玉里 (電話一〇六九番)

通信社員募集

廣重醫院

三成金비녀

마라손王 孫選手 優勝의感激을말할 오케 레코-드

光熙町典當舖에서 贓品一切를發見

樓上町强盜事件으로南北兩署猛活動

有力嫌疑者鍾路署에被逮

기보=이십일 오후열한시반경 에시내루상정(樓上町)사십오번지 김덕영(金德泳)(三三)의집에 침입한북면강도범인에 대하야는 소관종로서에서 서장이하 거의전서원이 밤을새워가면서 그체포에대활동을 하엿는데 아날밤열시경에는 범서강탈당한 금시계와김덕영이라는 이름을 수노아잇는외투가 시내광희정(光熙町)어떤조선인 전당포에서금시게는 이십오원, 외투는 팔원에입질하여간다는 보고가본정서에들어오게되엿다 그서형사대는 곳현장에 달려가서 장품을 조사한결과 틀림이업서 크게긴장되여 니여대활동을 개시하엿다

종로서에서는 피해자김덕영이 가병자인데다가 하필그역 외출하고 업는동안에 그의 어머니혼자 들에서 일을하고 잇는틈을타서 침입한 그수법을 미루어 아마이집 내정을 잘아는자의 행동으로 보고 극력수사한결과 이십일일 새벽에 유력한 혐의자 한명을붓잡게되엿다

그러나 이혐의자를 취조하는 한편여시 주력을 밧그로빼처서 방금계속하야 맹활동중인데 이제장품까지나오고 범인의유피과 발자최가 거진들어나고잇슴으로 조만간 범인은 종로서에서 밝혀낼것으로보힌다

'德力'本據를衝擊

出張刑事隊等東京서猛活動

속보=두달전에 '서북'에관한 금괴밀수출과릴세사건을 적발하야 지금상계(地金商界)에일대충동을이르킨뿐아니라 사회의주목을이르킨뿐아니라 사회의 주목을 확고시킨 본정서의 예리한 '메스'가 조선내지금상계뿐아니라 일본전국에서도 독보의지위를 자랑하는 '덕력'에옮겨가자 그들의 밀수액이 이천만원이란 거액인것과 그수단이 교묘대담한점은 세상사람을놀라게할뿐아니라 사건은 드디여 이상점과 밀접한 관게잇는 동경 '덕력'에까지 옮겨가버리고마럿다 경성'덕력'의사장 산전황(山田晃)귀다를 체포하러 수일전 동경으로간본정서 김경부보(金警部補)는이십일일에도 아직 도라오지안코 경시청(警視廳)의응원을어더게속취조중이며경시청은 이와별게로 동경시신전구송전정(東京市神田區松田町)에잇는'덕력'의본거를찌르기에착수하엿스며 그뿐아니라 동경시내에잇는유력한 지금상전부의내용을발키기에 힘쓰고잇다

이리하야 '덕력' 사건이던진일석은 바야흐로 '풀드랏슈'에취하여잇는 전국수만의 지금상에게 일대충동과 공포의파문을 던지고잇서 그사건의 진전은 극히사회의 주목을끌으는바로 경찰당국은 이것을 긔회로 이와가튼 밀수사건의 단절을긔하야 정부의산금장려(産金奬勵)와 금보유(金保有)의 이대정책의 성공을목표로 불면불휴의 맹활동을 하고잇다

白晝百貨店內에서 所持品을强奪

二十一日三中井에서

시내각처에서 련속적으로 흉악한 강도사건이 발생하야 경찰의 신경을 예민케하고 이십일밤열한시반경에는 또다시 루상정(樓上町)에 복면강도가 낫타나 시내각서는 그야말로 필사적 맹활동을 하고잇는때 이번에는 번번한 대낫에 당당한 백화점에서 강탈사건이 발생하엿다

이십일일 오전열한시쯤 되여 련건정(蓮建町) 이백팔십팔번지 중도(中島)마쯔(三四)라는 녀자는 본정입정목 삼중정(三中井)백화점 일층에서 현금 삼십여원과 푸라치나 금반지 과다 물건이 들어잇는 책보를 강탈당하엿스며 범인은 나히 이십사오세되는자로 토끼와가티 도망질하엿다

급보를바든 소관본정서에서는 때가 때인만큼 범인을 극력엄탐중이다

二千圓詐取違走

충북보은군 보은면삼산리(報恩郡報恩面三山里) 리장제(李良濟)와 조필제(趙弼濟)(二三)두명은 남의돈이천원을 사취(詐取)해가지고 지난십팔일에 경성방면으로 도주하엿다하야 그곳 경찰서로부터 경기도 경찰부로 붓잡아달라는 통지를하엿다

工費六百萬圓의 端豊線鐵道工事

【咸興】허천강수력전기(虛川江)의 준비공작으로 이미철도국에 인가신청을 제출하고 잇는 단풍선철도(端豊線鐵道) 칠십오킬로의 부설에 대하야서는 이미 총독부관계국에서 거의 심의를 필하고 느저도 래월초순경에는 정식인가 지령이 잇스리라고한다 회사에서는 착공에 대한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고 오직정식 인가만을 기다리고 잇는데 래월초순경에라도 정식 인가만 잇스면 곳착공할터로 벌서간(間)송본조(松本)서송(西松) 공의상조에서 대리중에잇다 공사비는 약륙백만원외 거액으로서 그중륙할가량은 국고보조가잇슬터이라고하며 소화십삼년사월까지는 준공될것이라고하는데 이것이 착착진행됨에따라서 수전공사도 착공할터이라고하며 함남도의 공사경긔는 완전히 황금시대를 이룰것이다

하모니카밴드演奏會

今夜基靑講堂에서

시내'알파·아모니카·밴드'에서 제삼회 연주회를 개최한다 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간 동'밴드'전단원이 총동원하야 맹렬히 연습한 결과 드디여 만단의 준비가 다 되여 오늘밤(이십일일)일곱시부터 시내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 대강당에서 열기로 되엿는데 장내 정리비로 당야에 십전식을 밧는다고 한다。

中江鎭은零下20度!

國境으로몰려오는嚴冬의跫音

【平壤】최근의 평양의 기온은매일아침 령하(零下)사도를 오르나려 힌 서리는 대지를덥허오전열시가 넘도록 녹지안는기온이다 이십일아침에는 령하사도 칠분국경지방인 중강진(中江鎭)은 령하이십도에 떠러저 례년보다륙칠도나 더칩다 만포선 동룡굴(蝀龍窟)에서는 『스키-장』준비에밥부고 평양중요학교 보도련맹에서는 대동강빙상 『스케이팅링』의 위치를 협의햇다 이리하여 들리고 보이는것은 전부가 겨울소식뿐이다

內國郵便과同樣

滿洲國과振替貯金去來

貯金口座에自由로加入可能

十二月一日부터實施

일본과 만주 두나라사이에 우편진체저금(郵便振替貯金)으로돈을 보내는 제도를 창설하야 오는 십이월일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엿다한다。 일본과 만주 두나라사이의 긴밀한 경제관계에 비추어 지난번에 두나라사이에 『우편위체』교환(郵便爲替交換)을 간편하게하야 돈보내는대에 편의를 도모하엿는데 이번에 또 이 새 제도를 창설하야 실시하게된것이다。

그 취급방법과 불입진체(拂込振替) 불출료(拂出料金)등은 모두 내국우편진체와 마찬가지일뿐만아니라 일본내지나 조선에재주하는 사람이 만주국의 구좌(口座)에 가입하는것이나 만주국재주자가 일본의 구좌에 가입하는것이나 모두자유이므로 리용자의 밧는편익이 상당히 만흐리라한다

만주국의 통신시설의 현상으로보아서 그나라의 모든우편국에서 이제도에따라 모든취급을 시행하기는 곤난한 사정이 잇스므로 우편진체저금 사무를취급하는우편국과 그취급사무의범위는 이다음에 고시(告示)하기로되엿는데 리용자는 이제도실시뒤에 우편국에 문의하는것이 조타한다

(사진은 종로일정목불탄자리)

注意! 祝融의出陣期

今曉鍾路一丁目 繁華街에火災

飲食店梅鉢全燒

이십일일오전세시이십분경 종로일정목팔번지 음식점 매발(梅鉢)매발이녀(梅鉢貞明)( )방에서불이 일거나 개와이은평가한채를 다태우고 세시오십분경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오천원가량이요 원인은 온돌방벽으로부터 발화하야 실화인듯하며자세한사정은 조사하는중으로 이부근은 망화문동을 중심으로한 거룩이 즐비하야 출동한소방대는 각별히경계를하야 연소는간신히 막엇다고한다

下往十里町서 二階全燒

▲이십일일오전령시십분 례지정(禮智町)백칠십일번지 강복업(姜卜業)( )女)의집에 불이나 약십분만에꺼젓다 손해는백원가량 원인은 방에불을 넘우때인데로

▲동일오전두시오십분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구백사십이번지 목수 로동주(盧東珠)( )의집에불이나 『도단』이층집한채가 전소되고 초가한채가 반소되엿다 진화는 세시반 손해는 륙백원가량 원인은 불을넘우 때인관계

老妓飲毒

이십일일오전령시사십분경에시내무교정(武橋町)칠십번지의사호 정옥순(鄭玉順)( )이라는 녀자가칼모친십개를먹고 자살을하려고 고민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이발견하고 수은정(授恩町) 전일당(全一堂)의원에서 치료한결과생명에는 별관계가업다는데 원인은 그는그전긔생으로 현재는 남의첩노릇을하고잇는데 큰마누라와 여러번싸우고는 그것을비관한것이라고한다

瀆職警官判決

懲役六個月執行猶豫

【平壤】현직경찰관독직사건으로 일반의 시청을 집중하고잇는 례의 김경부사건은 이십일오전열한시부터 평양지방법원형사정에서 제이회공판이 개정되여 복포(福浦)재판장으로부터 김기조와 김병욱에게 징역륙개월의 체형과 추증금백원을 각기 언도햇는데 량명에게는 삼년간집행유예의 특전을 주엇다。

김기조는 사건중 휴직처분에 잇스므로 체형이되다면 특전이 업서질것임에따라 상고할 모양이며 림회 대판(大阪)검사의 부대공소가 잇슬모양갓다。 관계피고전부의 구형과 언도를 드러보면 다음과갓다

	求刑	言渡
金長爵	懲役一年	懲役十個月 未決拘留通算百二十日
李承宇	罰金八十圓	罰金八十圓
金炳珪	罰金百圓	罰金百圓
金炳旭	懲役八個月 追徵金百圓	懲役六個月 追徵金百圓
		但 三年間執行猶豫
金基潮	懲役十個月 追徵金百圓	懲役六個月 追徵金百圓
		三年間執行猶豫

齒科器械材料 開業記念特賣 內外齒科商會 振替京城二五八五〇番 電(光)六五九番

光州衡平社事件 十二名全部無罪

廿一日、大邱覆審에서言渡

【大邱支局電話】광주형평사사건 피고 서광훈(徐光勳)외 열한명에관한 언도공판은 이십일일오전열시부터 대구복심법원 제일호법정에서 강상(江上)검사관여 미전(米田)판사담임으로 개정되엿는데 전긔 열한명에게대하야 모두무죄를 언도하엿는데 강상검사는 상고할의향은 업는듯 하다한다 그런데 당일출정한 피고는다음과갓다

▲徐光勳 李同安 朴好君 吉漢東 沈相昱 李鍾律 金水同 李漢容 崔錫 羅東顯 金正元

十四道溝에 共産軍襲來

경무국착전=이십일오전한시십분경 함남대안 십사도구(十四道溝)시가에 소속이 불명한공산군일파가 습래하야 동지경찰대와 교전중이라는보도를접하고신갈파서장 하서원·출동하야강안경비대와협력하야경계중이라한다

仁川近海惡險島에 燈臺設置陳情

【仁川】시월이일록도환(鹿島丸) 침몰조난된 칠십생명을 수장한사건이돌발한이후인천근해항로에 대한 비란이비등하고잇든바 근자에 이르러룡유(龍遊) 어업조합 덕적(德積)어업조합외 수개단체의발긔로 악험도(惡險島)등대설치를 진정하엿다 또한인천상공회의소에서도 동지대에대한 상세조사표를 첨부하야 체신국에 요망서까지 첨부제출하엿는데 조사한바에의하면 현재진남포(鎭南浦)와신의주(新義州)방면의 통행선이 현재덕적도(德積島)를회항케되는것을 악험도(惡險島)에 등대를 설치하야 직항케하면적어도삼십마일에 삼시간을단축식힐수잇슬뿐아니라 소화륙년이후 오개년간의 조난사건만 집계하야보드라도 조난선 일백이십칠척에 조난인원 일백오십칠명 금액만도 삼십만원천구백칠십원에 달하얏다는데 상세한내용은 다음과갓다한다

同	大破	六一隻
同	小破	五六隻
流失		一〇隻
死亡者		一五〇名
備品流失		九件
行方不明		九名
損害		三〇六、九七〇圓

(以上昭和六年부터五個年間)

纖手에熱球는亂飛!

戰一戰滿場緊張

前年覇者의好壽敦女高惜敗

今日女子中等籠球戰

대망의 여자롱구전! 리화녀자전문학교주최와 본사후원의 제삼회전조선여자중등학교여롱구대회는 이옥고 금이십일일오후한시이십오분부터 리전체육관에서 열리엇다。 자랑하는 깨임에 여용사들의 약동미를 비저내는 롱구(籠球)의 매력은 만도팬의인긔를 당북이 끌어 먼길도 기까웁다는듯이 넓은 체육관은 비인틈업시 꼿밧을 이루엇다。

정각이되자 홍문과 긴장에싸인 함흥영생, 원산루씨, 개성호수돈 배화, 리화등 다섯학교 대표선수가 입장하니 동대회회장 『아펜셀라』교장의 간략하고도 뜻깁흔 개회사가잇섯고 작년도우승교 호수돈녀고로부터 우승방패를반환한다음 선수일동을 대표하야 호수돈녀고보경정옥양(金貞玉孃)의 선서문랑독이끗난후 경긔는호수돈과 배화의 접전으로 전개되엿는데 벽두부터 과연 백열적접전을연하야 응원단의환호와 박수성은 장내를 진동케하엿다 이날 석간마감까지의 전적은 별항과갓다

◇第一回戰

培花 30 【前12……4 後18……5】 好壽 9

前年度大會에 優勝한 開城好壽敦女高普對培花女高普戰은 同日午後一時三十三分부터 金振秀, 孫禧俊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前半戰에兩軍 白熱戰을 演하드니 培花軍連絡好調로나가十二對四로 培花『리-드』後半戰에 드러가 好壽敦軍이力戰奮鬪하엿스나 効업시 十八對五로 또培花優勢하야 結局三十對九의 『원사이드』『깨임』으로培花女高普가快勝하엿다

(사진은 대회입장식)

學校、駐在所建築費等 五千餘圓을詐用

橫領面會計公判廻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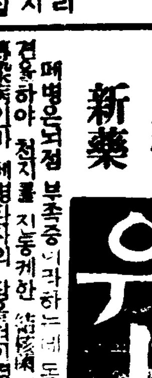
면회계(面會計)를 마터보고 회로하야 그가취급하게되든 학교신축비긔부금과및 주재소신축긔부금등 오륙천원을 횡령소비한 경긔도 양평군 설악면 선촌리(楊平郡雪岳面仙村里)전설악면서긔 리세휘(李世徽)( )에관한 업무횡령(業務橫領), 사문서위조피고사건은 지난구월 경성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야 그간제이예심전중(田中)판사가담임 취조중이든바 취조가 일단락됨을따라 이십일드디여 유죄로결정그법원공판에 회부키로되엿다 사건의 내용은 피고가 소화륙년사월에 전기설악면 서긔로임명되야 소화십년 이월부터 면회계를 마터보게되엿는데 그는 이것을기화로 금년팔월까지사이에 면민으로부터바든설악면주재소(駐在所)신축긔부금이천여원과 밋 그면미원(美原)공립보통학교 신축긔부금 기타오륙천원을 횡령하야 생활비와 유흥비에 소비한것이라한다

天氣豫報

槪況 七百六十二 미리의 低氣壓은 滿洲中部에 잇서서 山東省까지 뻐친 不連續線을쫓아 東進하고잇고 七百七十六미리의 高氣壓은 日本本土 東北地方의 東海上으로부터南 朝鮮에 퍼지고 太平洋方面은 氣壓이낫다 滿洲中部는 雨又는雪 南北滿洲 朝鮮及日本內地는 大槪日氣가 조호나 京都大阪地方은 少雨가온다 半島의 氣溫은 作朝보다 二度乃至三度가 노파젓다

豫報 京城地方은 오늘 밝은 曇一時小雨 明日은 晴一時曇 京畿道全區도 亦是갓다

昨日最高 一二度八 / 同最低 一度四 / 今朝最低 零下二度四 / 今日正午 一〇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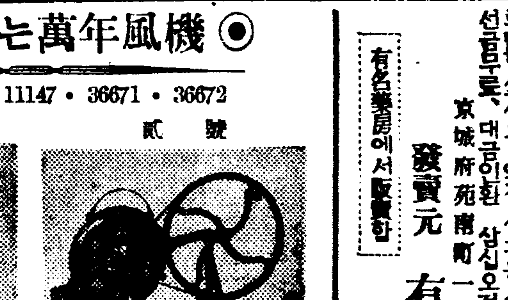
폐병은뇌점 부족증이라하는데 독일コッホ박사가 세계적 위대한발견을하야 천지를 진동케한 結核菌이 폐를파먹음으로 생기는 두려운 傳染病인바 폐병환자의 담을현미경으로 검사하면 約三億의 결핵균이 잇다。 內務省統計에 依하면 일년간에 約五十萬名이 신음하야 그중約十七萬名의 귀중한생명을 빼앗기는 무서운 악질이다。 폐병에 걸녀도 初期는 潛伏性이 만하야、여간 진행하기전에는 신경쇠약이나 위장병으로도알기쉽다。 이와가티 부지중에 병균을 활동하야 一期、二期、三期사기가되고만다 실상폐병가티 여러가지증세를 이르키는病은업다。 그러나 結核菌만업세면 되는데 종래에는 아모효도업는 부적당한 치료법을과신하야 공연히 치료할때를 노치고 폐병은들면죽고 살지못한다고 하란만하엿다。 아모리惡性三期의 폐병이라도 곳낫는약이라면 당연나 ... 으로 신효함을 환자자신이 자각할것이다。 有恒社藥品部에서는 불행한환자를 구하기위하야 고심연구한결과 세계적 신발명하신 高級治肺藥『유-고-루』를 복용하면 殺菌과 排痰作用을하야 복약후긔분이 대단상쾌하고 두통이나 완고한열도나리고 구미가생겨 식욕이증진하고 원긔가나서 혈색이조와지고 쇠약을회복하야 살이 오르고 기침、담、도한、오한、숨가븐것、피로하는증세나 혈담 가슴압흔것、엽구리결리고、사지가압흐고、뇌곤한증세등이 綜合的으로作用하야 효험을본다。 별별약을 다쓰고 백방으로 모든 치료를하여도 낫지안어 고통하는분은 생명은 귀중한것이니 일시라도 속히 高級治肺藥『유-고-루』를쓰시요、약갑 삼괴용 이십원、이기용십원、초괴용오원、송료선금우로、대금이환 삼십오전

有名藥房에서販賣함

京城府苑南町一一九 發賣元 有恒社藥品部 電話光一四三〇番 振替京城七一九五六番

◉왕계로불때는萬年風機◉

特許受付番號 11147・36671・36672



一、本機特長 一、本機는使用容易하며 焚口는 몃치라도 替次使用할수잇슴 一、燃料는 왕계 其他燃料實인(부서럭지)廢物을利用함 一、本機는純鐵製로 十年以上使用可能하며、피대(ベルト)도 鐵絲로 長久히使用함 一、壹號機는自動的으로 왕겨가 吹込됨

特約店募集 型錄規定書進呈

萬年風機製作發賣元 慶北金泉邑錦町一九四 ◉鄭基東商店 工場 金泉邑錦町一三八番 電話 一三〇番 振替京城二四五一五 電略(テイ)文ハ(정)

性障害 早期射精防止藥! 絶對責任付! 大不幸 今日로 天下俞하시오 價 三圓半 十三號 三一圓

更少年 其他粹肩珍藥 ... 目錄進呈 試藥請求하시는이에게 五行公司 安東縣四番通九ノ二 振替京城一二〇八

男女 淋疾 麥茸五淋錠

恩給 恩給(遺族扶助料)及年金利子 ... 商會

書籍 新舊及新古書籍誠實取扱 文博中山久四郎編ペン字 入和英併用新式辭典 革裝一五四版 定價三圓 地方代金引換送料本間負擔 京城府明倫町三丁目六七 京 洋閣 振替京城一五七五一

朝報案內 貸室 東亞所 電話付 京城府橋北町一〇〇 電光③一六七三番 社員募集 三十歲以上中學卒業程度 ... 日光堂

폐병 륵막염 부족종엔 신성당 나오삐ー가 전세계에제일이오!

폐병은낫는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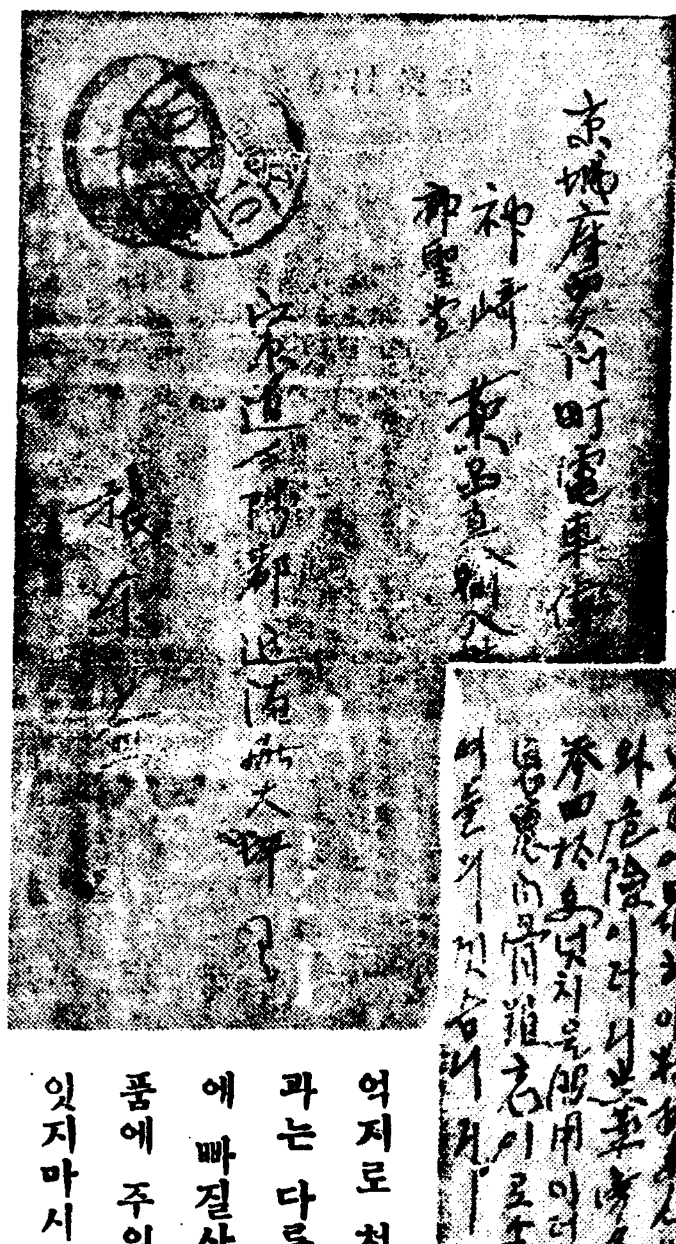
폐병은, 보통, 부족증이라고도하고, 내종병, 또는 뇌점병이라고도하야, 허폐가, 썩어드러가는고로그야말로 백발백중으로 천이면, 천만이면, 만숙는다는 병인데, 처음에 잘치료만하면, 대개는다ー、나을수잇는병이다。왜폐병에걸니느냐하면, 피(血) 가모자라고, 먹는것이잘, 안내리면, 긔운이업는대, 그틈을타서, 폐결핵균(肺結核菌) 이폐(肺)를파먹는것이다, 그러나긔운을도드고, 피를만히 만들고그균을죽이는약을 먹으면 차차나어가는것입니다, 그런대지금까지 잘낫는약이업섯다 또 의학의 발달도, 부족하엿섯다, 그러나다년간, 이, 악독한(惡毒)병을, 업새기 위하야, 고심연구한결과, 고명한, 학술의 힘은드듸여, 참으로 천하에업든약품성분을, 대신발견하엿다 전세계에서 제일가는「나오삐ー」만쓰면 그만이다, 무엇무엇하야도 하누님이도으시는 때가잇다 이「나오삐ー」가당신을, 살니는 천사(天使)어오니, 이천사를꼭잡수시오, 일시라도, 빨니잡수셔오 륵막염은 갈비때, 엽구레가, 압허, 물이고이고, 종세도, 폐병과, 똑갓다, 역시 나오삐ー가 첨새다, 다음과 가튼 증세의분은쓰시오, 구머업고, 잘체하고,거칠하고담을뱃고, 신열어나고, 몸이파리하고, 혈담뱃고, 피를토하고,숨이갓부고, 원기가업고, 가슴이아푸고, 엽구리가결니고, 갈벼때가아푸고, 수족이찬분 즉폐결핵, 폐병, 륵막염, 복막염, 뇌점병에특효합니다 병은시각을다툽니다곳주문하셔면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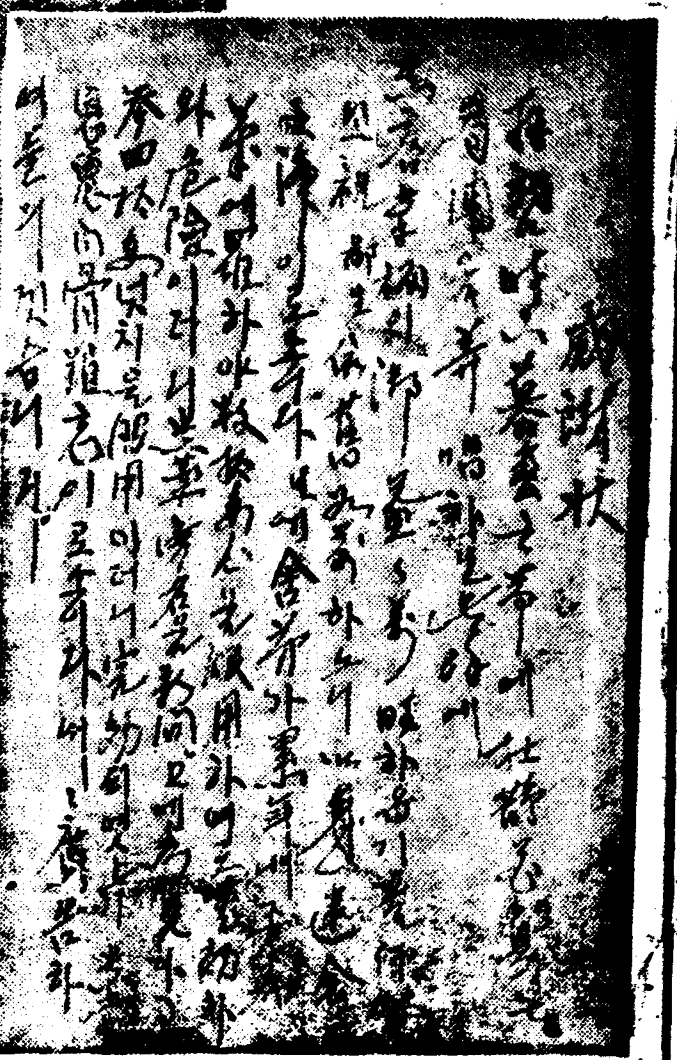
경성서대문력제일큰힌벽돌집
神崎神聖堂藥品 (신긔신성당)
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 三三四番 一〇七七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약갑
병이서초면 오원
병이몃달되엇스면 십원
병이중하면 이십원

약은 열흘분식이오병이심하시면 이십원분을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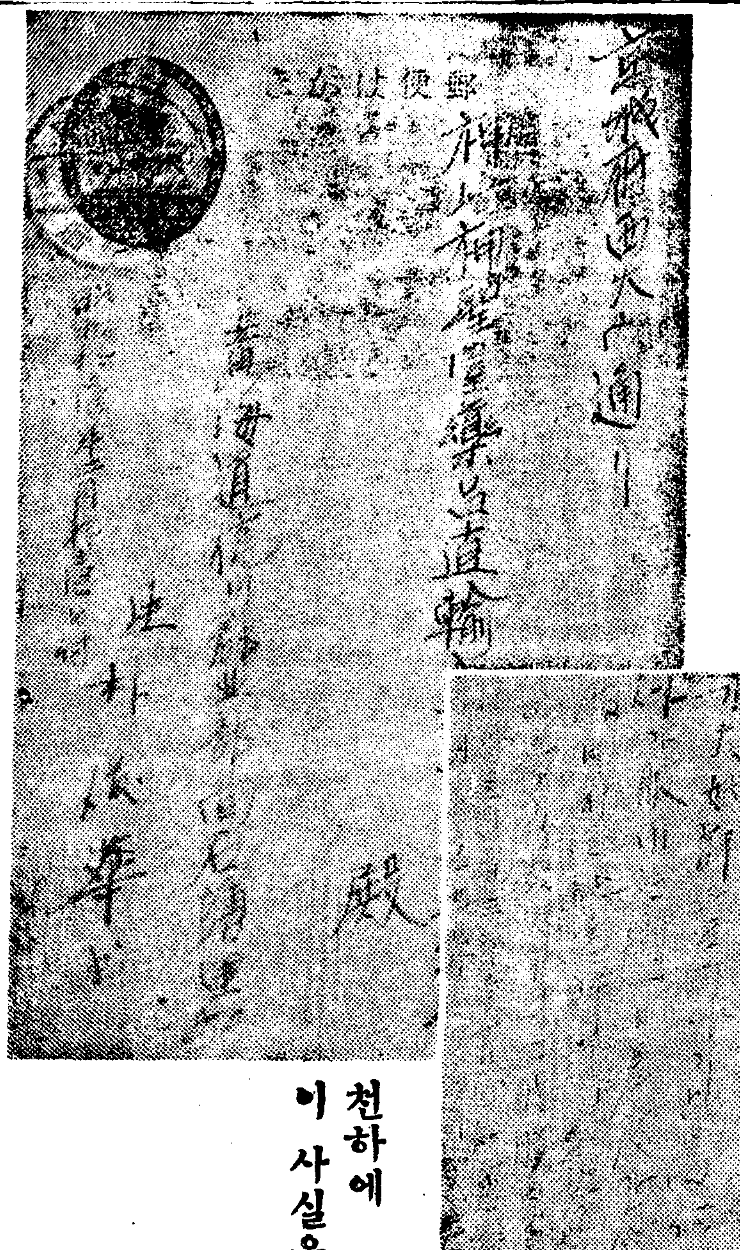
천만가지 설명보다 실지로 약효보신분들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약효를 사실로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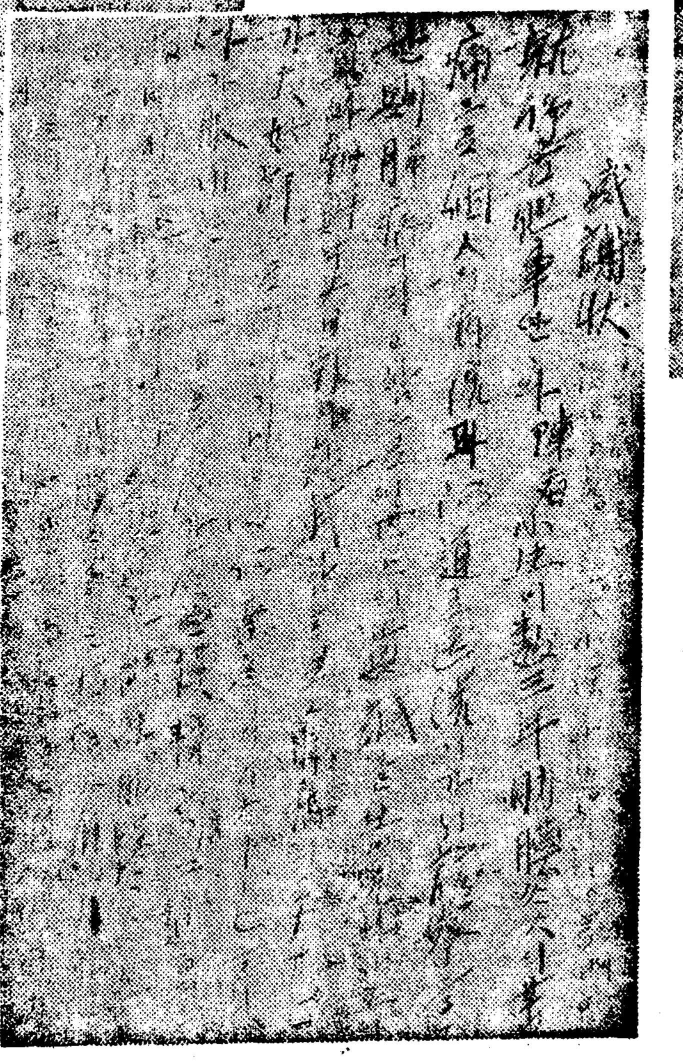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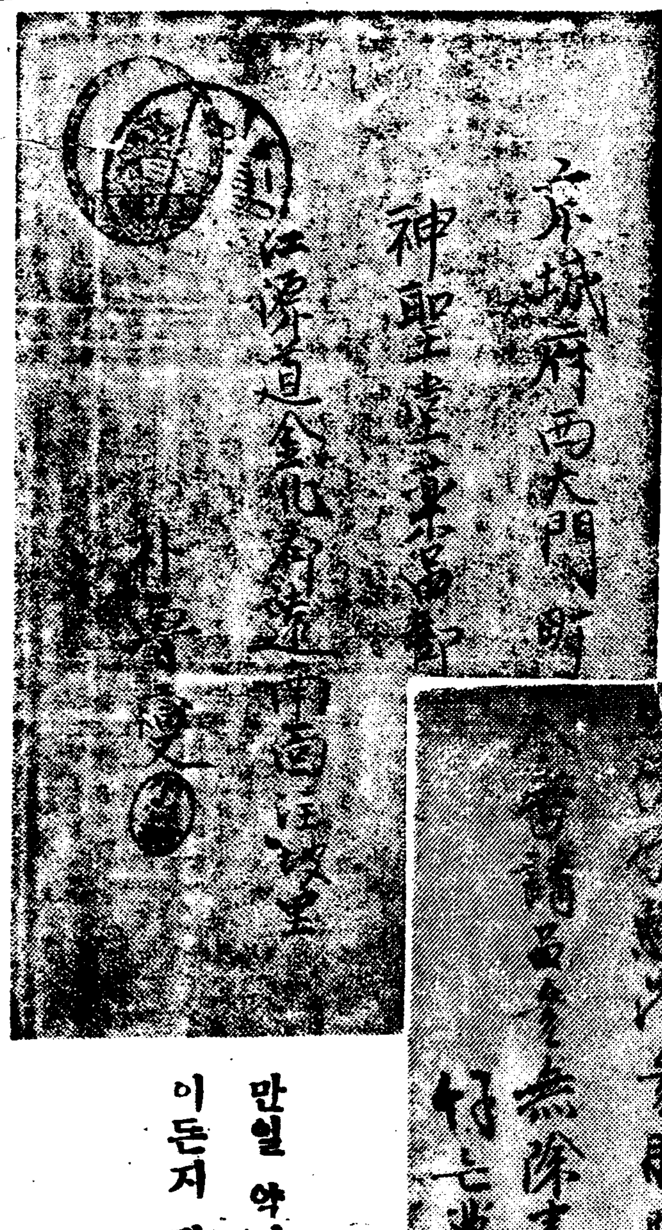
억지로 청하야바든 글(推奬文)과는 다릅니다 어리석은 피입에 빠질사람도 업겟지오 위조품에 주의하시오 신성당자호를 잇지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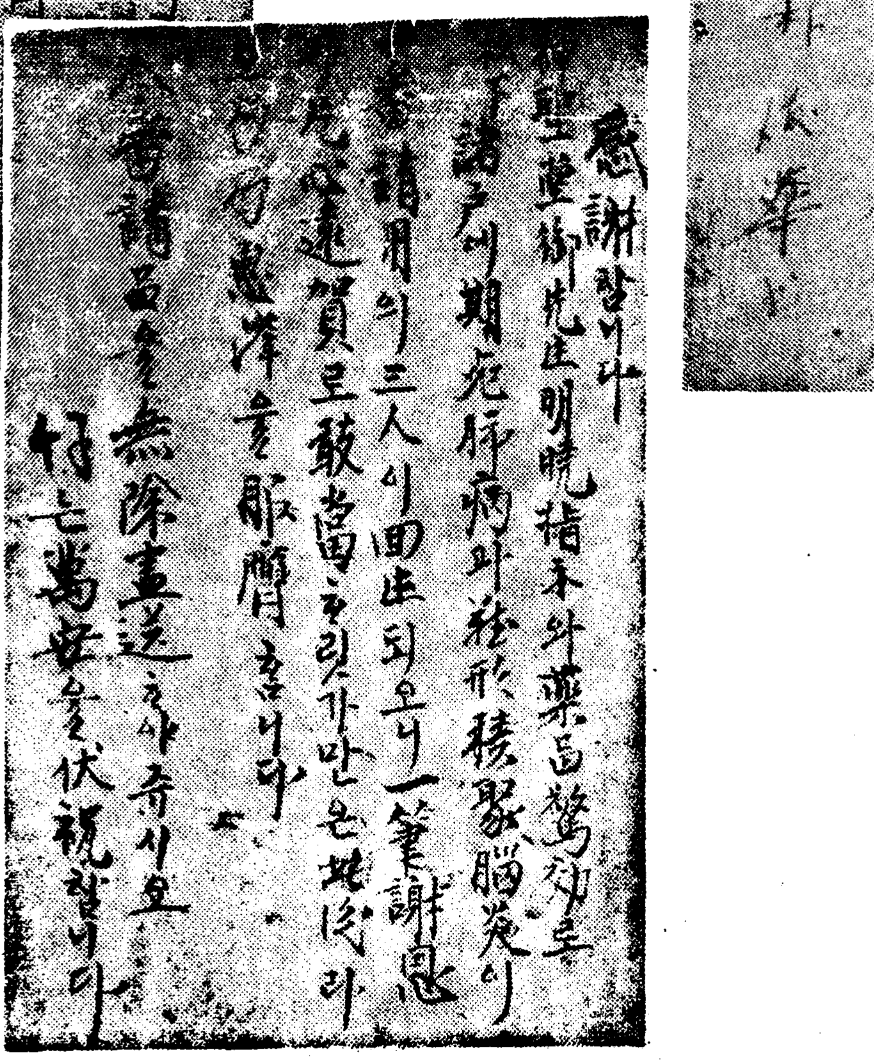
답지하는 감사장의 일부





천하에 소개안할수 업습니다 이 사실을!





만일 약이 무효면 엇떠한 책임이든지 집니다

요즘流行되는 무서운小兒病 ②

먼저『띠푸데리ー』

京大小兒科研究室 李聖鳳

일반히 기침을 하지안흐면『띠푸데리ー』가아닌줄 생각하는 사람이 잇스며 환자를 볼때 당신아이는띠푸데리ー라고하면 기침을안는데도띠푸데리ー입니까하고 의심하는분이 흔히잇습니다 후두, 기관지띠푸데리ー는반다시 기침을하지만『띠푸데리ー』의 대부분을 점령하고잇는 인두띠푸데리ー는 언제던지 기침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목안『띠푸데리ー』는『띠푸데리ー』중에서 완치되기 쉬우므로 될수잇는데로속히진찰(診察)해서 적당히혈청주사를하면 대개는낫는데 이제『식크』씨의 기재한것을 보면 이병의사망률은 백에하나반이라 하니 좀과히 말하는것갓습니다만 이병으로 사망 하는 사람이 업다고보아도 그리틀리니 안흘것입니다.

다음 후두띠푸데리ー는 본저말한 목안『띠푸데리ー』던지 코『띠푸데리ー』가 아래로내려가서 발생되던지 혹은 처음부터 그곳에 균이부터 발생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히소합니다. 목안『띠푸데리ー』를 치료하지안코 오래두면 이병이생기기 쉬운니다. 아이가 이병에걸리면 열이나는동시에 목이쉬고 그리고 개가 짓는것과가튼 일종특유한 기침을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전혀 나지안는때도잇스며 호흡곤난이 심하며 혹 질식하는 아이도잇는데『띠푸데리ー』가운데서 제일위험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때는 일분일초를지체말고 곳이비인후과전문의사의 진찰을받는것이 상책입니다. 본병의 사망률은 십팔『퍼ー센트』이므로 사망률이 목안『띠푸데리ー』의 약칠여배가량되니 조금치료를잘못하면 생명에도 얼마나 무서운병입니까.

다음 코안『띠푸데리ー』는 코속에 병겨가생기는데 다른『띠푸데리ー』에비해서 유아에게 만히옵니다. 이병의증상은 콧물이되고 고름가트며 피가갓금석겨나오며 그외에는 아모증상이업스나 혹어떤아이는 얼굴비치창백해지며 열이다소나고 코가맥혀서 어린아이는 젓을 빨지못해서점점쇠약해집니다. 혹불운한때는중독으로인하야 사망하는일도잇습니다 이병은 대단한 증상업는것이 보통이나 아래로내려가서 목안, 후두『띠푸데리ー』를 발생케하므로 코물이 고름가튼데가 금 피가석겨나오면 진찰을받어야되며 그저두면위험천만입니다. 『띠푸데리ー』때에 치료혈청을 주사하면 본병균때문에생긴 독소를 중화하므로써 본병이 낫는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청주사를할때는 우리는 그독소를 충분히 중화할만한 주사를 놋는데 만일 우에 말한것과가티 독히 악성이던지 발병한지 오래되엇스면 아모리 만히 주사를해도 결국 낫지안습니다. 이제 주사를 속히한것과 늦게한것과의 사망률에대한 관계를 보면 발병한지 제일일만에 주사하면 사망률이 이『퍼ー센트』, 제이일만에 주사하면 사망률이 팔『퍼ー센트』, 이와가티 날이 갈사록 점점 사망률이 늘어가다가 제륙일만에는 아십오『퍼ー센트』나 되므로 속히 발견해서 곳 주사를하면 거이 전부 완치된다고 볼수잇습니다. 치료혈청과 본병과의 관계를 알기쉽게 다시 말슴하면 마치 불붓틀때에 물을 부어 불을 끄는것과 가튼것입니다. 불이 적을때 속히 적당한 물을 뿌리면 곳 불이 꺼저서 큰 일이 나지안케할수잇지만 만일 어물어물하는새에 불붓는 범위가 넓어진때는 아모리 물을 만히 뿌려도 그 집을 구해내지 못하게됩니다. 이와가티 물은 불을 끄는 능력은 가지고잇지만 발서 불에 타버린것을 타기전과가티 다시만들 능력이업는것과 마찬가집니다. 『띠푸데리ー』때에『띠푸데리ー』의 산출한독소는 불과가트며치료혈청은 물과갓다고 볼수잇습니다. 그러므로『띠푸데리ー』초기에 독소가 전신에 다퍼지기전에 속히 혈청주사를해서 그독소를 박멸시켜야지 어물어물하다 여러날지나 균의독소가완몸에 퍼진다음에는 아모리 주사를 만히해도 소용이업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에말슴한 증상이 잇는듯하거든 속히진찰을밧는것이 안전합니다.

洋茶黨에게―반성을구하는 더운미수가루차

고수한맛은참말『천하일품』

카피, 홍차, 코코아등의 여러가지 차는 현대사람으로서 누구나 날마다 마시도록 보급되여잇습니다 더구나 차집이라하야 순전히 차만파는곳이 서울만하야도 여러집이며 차를 마시려 모여드는 사람도 갈사록 늘어가고잇습니다 이러한 차당가운데는 대개 두종류가 잇는데 하나는 복잡한머리를 조용한차집에서 청음흔들내고 음악을드러가며 쉬이라는 부류며또 하나는 차ㅅ맛이 그리워서 하로에 몃잔식안먹고는 못배이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도 손님이오면 의례히차를내여놋는데 대개가 압서서말한서양차를 내여 놋습니다

차라는것은 머리를흥분시키는것임으로 커피나 코코아나 홍차를 만히먹으면 잠이잘오지안코 머리가 띵하여지는것입니다그러므로 다른것으로서 차를 대신하야 영양에도 조코 맛도조흔것이 업슬가무엇이던지 바다를 건너온 물건이래야 조코바다저편의것이래야만 쓰는 현대인의 통폐에 흑이려한 말이 귀를 거슬릴지는 몰라도 사실이 두렷하고 물건이 조흔지대 한필 조선물건이라하야 뿌리칠것도업습것입니다 조선서 옛날부터쓰이고잇는 미수가루―이것은우리가 세계에자랑하야도 조곰버젓한 차가안일수업습니다 자랑하니 하늘에 떠러진 수박씨가루로 만든것인줄 압니까 커피 코코아 홍차할것업시 모다가 근본은 나무열매입니다그것이 팔자를 잘라서 선진문명국 물건이 되엿음으로 오날날 우리네가 질겨서 마시는것이지 실상은 향긋니 무엇이니하야도 별것이아닙니다 미수가루를 만드는 법은다아실듯하나 혹참고가 될듯하야』다시 뒤푸리하겟습니다

현미(玄米)를 물에시처지말고 헌겁으로잘닥거서 깨끗하게한뒤에솟이나가마에 복거서 검으면서도여호빗치 나도록하야 그것을 맷돌이나 절구로 잘찌어서양철통가튼데너허 두고 필요할때마다조곰식내여 씁니다 이가루를 보드러운 헌겁이나 커피 조리에 너허서 더운물속에 흔들면 노란차가됩니다 여긔에각사탕(角砂糖)두세개를풀러서 마시면 향긔도향그러니와 영양가치가 말할나위업시 훌륭합니다

이밧게 검정콩을가지고 현미차처럼복가서 이로물어깨면 쓴맛이 나도록하야 절구로 찌어서가루로만들어도 조흡니다 이것도 더운물한홉에 이가루한사시를 커피 조리에너허서흔들면 이것도 훌륭한차가 됩니다

귀동냥

인두의녹쓴것은 이러케벗깁니다

인두에 녹이 슬엇거든 벌거케 달궈가지고 얼는양초를 녹여서 무처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십분지낸뒤 다시또 걸게 해서는 헌겁에다가 대고 썩썩문지릅니다 한번에당장나지지 안커든 두번 세번 그러케 되푸리해 보십시요. 나중에는 말끔하게 저버립니다.

왕자와거지 ㉒

마ー크·토웬作 崔秉和譯

『손님! 저는아모것도모릅니다. 아마그애를데릴려온사람이 이불에다가 손을대는것만보앗습니다.』

『나릇속여서 시간을지체식힐라고한것이틀림업다. 애그놈은 혼자왓서?』

『네, 혼자서―』

『똑바로보앗니?』

『네, 확실합니다. 손님!』

『마음을가라안지고 잘생각해봐라.』

뵈이는잠간동안생각하드니

『올때에는 확실히한사람인데 저―다리위를 건너갈때는 아조얼골이 험상스럽게생긴놈이 뛰여나와서―』

『뭐? 얼른말을해라』 헨돈은 참지를못하고 이러케부르지젓습니다.

『네, 그때 마츰 사람들이 만히몰켜왓슴으로 보이지안엇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주인이 빗갑이가 주문한료리를 이저버리고 안가지고갓다고 소리를 지르므로―』

『마침지시 뚝이보지못하고』 보이는 거기머뭇거리고 잇다가는 어떠마질가바서얼른 뛰여나려갓습니다. 헨돈도 층계를 세층식뛰여서문박그로 나갓습니다.

『고약한놈 정녕어적게 그놈이 틀림업다 자기아들이라고 하든놈……。』

귀여운나의임금님, 고만해여지게되엿구나。 못치렴 귀애해 주엇드니 고만, 아니다. 이러케잇슬때가아니다。 어떠한일이잇드라도 너를찻지안코면안된다。 벌서 아츰밥도가지고왓는데 밥보다도 시간이급하다 헨돈은다리를다름질치면서 헨돈은 문득 어느것을 생각한거처럼 얼골에 우슴을띄우고 말하엿습니다.

『그애는 두덜두덜하면서 나갓다―그러타, 헨돈이 불르는줄알고나가갓다. 다른사람이 불럿다면 결코 따라갈리가업다。나는 잘알고잇다』

一四、악한에게 붓잡힌국왕

헨돈은 열심히길가는사람들의 얼골을 치여다보면서 런돈다리에서『소스왁크』다리를 향하야 급히거러갓습니다. 그러나 소년은보이지안어서 지나가는사람 양엽가게에서 무러가지고 하여튼 소스왁크거리를 빠저나간것만 아랏지 어느곳으로 갓는지 도저히알수가업섯습니다。해가질때까지 차저보앗스나 소용이업고 도리혀 다리는아푸고 배는고프고 이제는 어떠케할수가 업섯습니다。헨돈은 조고만여관에서 밥을사먹고 그곳에서 자면서 내일아츰일죽이 차저보기로하엿습니다。

『그애는 애에비라고하는악한놈의손아귀에서 도망해나올것이다。그러면 전에묵엇든여관을 차저올것이다。아니 또 붓잡힐가바서. 여편으로도라오지안흘는지도 모르겟다。그러면 어떠케하고 잇슬가?―그애는 이마일스·헨돈을 맛나기까지는 누구한사람 그애편을드려줄사람은 업슬것이다。만일위험을보지안코 런돈에도라오지안는다면 정녕나를 차즐것이틀림업다。그러면 그애가 우리고향으로가는길을무러가는길이라면 나는 여거 한시라도 떠잇슬것업서 우리집으로가자。『켄트』주(州)로가서 『몬크스·홀』을 향해서 숲속과들판을 차저가면 맛날수잇슬것이다』이러케 헨돈은결심하고 그날밤은 그대로 자버렷습니다。

콜로라튜라·쏘푸라노

朴景嬉孃獨唱會

今夜! 七時半 府民館에서

京城女基青主催 本社學藝部後援

십이지장충

問 금년 이십세남자이옵시다 저는 과분이조치못하고 정신이 아뜩아뜩하기로 모의사에게 진찰한즉 십이지장충이라하며입원하라고합니다 형편상자택치료를 하고저하오니 될수잇슬까요 만일근치되지안하오면 무슨큰병이발생될가요 회충보다도 무서울닛가 무슨약을 먹으며 어떤병원의약을쓰면 조켓습니까잘 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市內一讀者)

答 십이지장충증(十二指腸蟲症)이 확실타하오면 입원하시여서치료하여야됩니다 복약하기가 가정에서는위험한연고입니다 치료치안코그대로두면 그중으로인한 빈혈(貧血)과중독(中毒)이 생기여서 부종이나게됩니다 회충에 비하야 어떠다고 말삼키어렵습니다 회충으로도 생명이위험할때도 잇스니가요 그러나대개는 회충보다 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떠병원이던지 내과병원에 입원실이잇스면 적당합니다 (聖母病院長 朴秉來)

最上 醬油 ウルー 良 コーキ

가싸고 맛조흔 왜간장

『갈밧』

강까에잇는
갈때풀들
◇키가 크기도하다。
나이를 만히먹고
벌서 늙어서
◇허리가 구벗구나。
기러기가 말하더라
―바람아부지마라
괴로워한다。

(공손사립 유동원)

유ー모어小說 姓女씨 (十四)

金熊超作·畫

戰績의記錄(8)

몸빗(體色)의변화를 짐부리는 카멜레온! 그것은 아직 구경한일이업지만―민보군의 얼굴은 리트마스시험지처럼 벌서 예민한 반응을 띄웟습니다. 물론 산성(酸性)이겟습지요.

『어제 밤에 나갓서?』

『네』

어린 자기에게까지 미칠 책임문제가 아니로되 계집아이는 사기접시하나 깨먹은듯수로 옴시 켕겨햇습니다.

『몃시쯤해 나가셧단말이냐?』

『저― 잘모르겟서요』

『잘모르다니, 어디 나가시는것을 너는 보지못햇단말이냐?』

『서방님 나가신뒤, 조곰잇다가 나가셧스니까요』

『어디 간다는 말두업시?』

『네―』

민보군은 잠시 무거운 침묵을 직히다가 겨우 칙구들을 도라보고

『엇재거니 드럼들오게』 하면서 먼저 구두를벗섯습니다.

종로통에서 이곳까지 일키로반의원정, 가행군을 하다시피하야 사십도의경사를 기어오를일대상인의토벌단에게는 아직독한니발과나폴레온등의 의기가 남아잇습니다。그러나 적은 벌서 이근거지에서 자리를또고 말지안엇습니까?●

부젓승!한침의피도흘리지안코용이히 수도(首都)를 점령한위훈 그러치만 그들의심경은 삽삽십시요―그만 『국 땅 나폴리』를 떠날네에 『아디스、아베바』를 탐내고 오긋은 아니엇습니다。이십세기오늘날까지도미개척지로 남아잇는 저 넓고넓은 『타나』호수! 거기에는 망고스칀、바나나、코코아등속이된 방향노픈숨이 그득히차 잇는줄만이 렷섯습니다。길업는사막을서너발작 것다가 발뒤굼치로 모래를파면『퀸·메리ー』가 가지섯든거와 마찬가지의 금강석이 톡톡 튀어나올줄아럿습니다 그도저도다 허사가된다면 저너른 초원지대에 상수리처럼 그득히 허터저잇는 사자똥을 주서다가 어린아이의 간기와 젊은이의 상한에 구급약으로 파라먹을 가륵한 생각까지 하고왓든겝니다。

그랫든것을――

『자―― 이지경 됏스니 어떠컨다?』

태하군의 얼굴에는 희망의비치 사라지고 대리석처럼 찬기운이 도랏습니다。

『롱펫지!』

하는 관수군의 그 노픈 콧등에도 날이 저무러 벌녕과인종 근처 어둑컴컴한데는 벌서 서리가 나려안는 모양이엇습니다.

황성라일! 사기가소진한부하들에게『기척!』을 부르고 다시『또라우편아푸로ー갓!』을 불러야 올흘까? 모자체이 예리하다면 당장에 자결이라도 해버릴듯이 자못침통한비출띄우며 몽백군이 자기의 가슴을 어루만젓습니다 (사실은 조기 호주머니속을 타진하는게지요)

지난밤 오전한시까지도 자기품속에 고히잠자든 일원짜리영감님셋! 오늘아침 잠결에 히뜩 드른기억이 이제 겨우나지만―『아이머니나, 이게 왼돈이야!』하고 새벽녁헤 옷수색을일삼하는 방정마진 안해가 압수만안햇든들 이런데한모는 메이게햇슬꺼아닌가!

『아―아 제군! 별수업네 드려가세。사람이란 인내력이 잇서야하네 백절불굴하는 정신을 가저야해。최후의영예를 엇기위하야 끗장까지 보세。』

사령장관은 부하를 인솔하고 비로소 입성을햇습니다.

작 □군의 치석처럼 살른――●

명색이 아방인모양인데 간사리가 몹시넓고、천정이 드놉고양복장이며 탁자며 레이불이며느러노은것이 제법훌륭햇습니다● 게다가 천정에는 밥풀강정만한 샨데리아까지 달려잇습니다。

『허ー 멋은다아는군! 바닥이 장판이라그라치 양실일세。이러케 차리고살자면 자네월급가지고되겟나』

태하군의 칩·말랏습니다。

『결혼할때 작만한것이라 웜부가 아니니까 상관업네』

『그래 설게는 누나햇나?』

『우리마누라가 가사까 교과서에서 본듯뜬모양이야』

『홍 자네부인도 상당한재원이군그래!』

이번에는 몽백군이 튀어나섯서습니다。

『이게 이칸이랑。기리가몃자나되나』

『팍스무자야』

『이십척이면、삼구이십칠에 또 삼구이십칠、구미돌남짓하지。가만잇자……쉰번만 왓다갓다한다면 근천미돌。외만한운동장 한바퀴도는 폭은되는군!…여보게민복군。자네는 부인이편찬을때부인늘어부서 이방아랫목에서옷목까지 왓다갓다한댓지? 이제알고보니 자네독심이 엔간찬헤그려。호주는적어도 멘다구웰정력이 그리대단한가?』

『그러니까 귀엽둥이지』

병장대소 이제겨우좌석이 좌석탑거되엇습니다●

登錄商標

담·기침 천식근치약

龍角散 (룽각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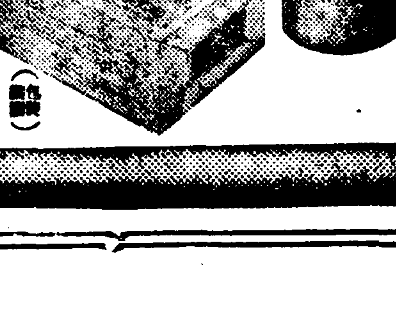
남기침一劑

감기기침

만성 급성 천식

백일해

치운요새에는 氣候가急變히 變할뿐만아니라 空氣가乾燥되어잇슴으로 담, 기침, 천식이流行케되야 건강하신분이라도 기침의發作에고통을밧게되는때가왓습니다. 더구나평시에도咽喉가弱하든분과족 담뱃는분、천식、氣管支를알는분은 더욱조심하서야됩니다。流行性感氣、黴菌으로 생기는기침、그외기침이나는병을 그냥두시면 肺炎肋膜炎、肺結核으로 變症되기쉬우니 이런때에靈藥『龍角散』을 服用하시면 모든기침병을 고처주며 變症이 되기전에 예방하여주고 속히 根治식혀줍니다。



龍角散의主効

담기침에 (담으로 목이 □□하고 기침이나서고통을밧는만성급성이분께)

천식에 (그르렁거리고 숨이가쁘며 병이 오래끄러괴롭히시고계신분들께)

咳嗽頻發 (유행성감기기침 편두선염이생기는 기침一劑에)

肺病기침 (肺病、肺尖、肺炎등으로 생기는 밧튼기침一劑에 특효잇슴)

협담에 (기침에섞겨서피가나오는분을 속하여서복용하시면특효가잇슴)

백일해 (어린애들의기침 특히백일해에 인한무서운판병을 남겨주지안코)

홍역기침 (홍역은 어린애들의생명을좌우하는것입니다마는 병의기침에특효)

●맛이향기럽고먹기조흐며절대부작용이업고
●胃腸에 아무고장을일으키지안합니다

定價

二日半分	二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日分	三十錢	四十日分	二圓
八日分	五十錢	六十五日分	三圓

本舗 東京市神田區豊島町 株式會社 藤井得三郞商店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浪花(67)〇九二〇 〇八〇〇

▲全道藥房에잇슴▲

家庭用에外出用에

참말로便利한

固形白粉

가장粒子의고흔美成分을特殊한方法으로固形을만들엇슴으로極히小量으로實로아름답게먹고白粉처럼飛散하야衣服을더렵히지안으며부서저지지안어꿋까지저쓸수잇다

家庭에서는粉白粉、外出에는콤팍트는퍽不經濟다

固形タンコドーラン一個로充分하다

スマートな容器入

高級パフ付

35SEN

TANGO DORAN

タンゴドーラン七色

얼굴色에應하야一層아름답게되는

一般婦人에게는……肌色

色이힌분에게는……白色

色이푸른분에게는……淡紅色

히지안흔분에게는……早明色

色이푸르고힌분……爽健色

色이붉은분에게는……新鮮色

實演的美容에는……明朗色

正價(各色一個)·大〇

化粧品店에잇슴

固形タンゴドーラン

당고도랑

담배考

담배의 逸話 (四)

湖岩

담배가 光海初年에 드러오든後 차차퍼저 光海末年에 가서는거의愛吸하지 안는이가 업게되엇다。

最初愛吸家의 一人으로 新豊府院君張谿谷(維)이 잇다。그는 담배逸話의 主人公이며 吸煙史上有名한분이 되엇다。野史에는 傳하야 말하되

『담배가朝鮮에 처음 드러오매 服用할줄을 모르드니 谿谷張維가 가장먼저 이를즐겨하야 檳榔에 比하엿고 그外舅仙源金尙容이 楊前에서 詰責하엿다』이로보면 張谿谷은 愛煙家의元祖요 金仙源은 禁煙家의元祖이다。

仙源이 담배에反對한것은 아마妖草가 사람에게 害毒을 끼칠가하야 그러한것갓다。그러나 谿谷이 담배를 愛吸한것은 藥草라하야 얼마쯤藥用으로 그리한것갓다。谿谷漫筆의 담배를적은一節에 아래와가튼말이잇스니

『華人宋佐浙江慈溪人也 謂中國南草旣傳播、或稱檳榔來、百年前國中已有之、今則殆遍天下、治赤痢最有効、余問此物[illegible]하고 하엿다。

谿谷은 中國人宋佐의 말에 對하야 「其言有理」라고首肯한것을 보면 그의愛煙이 어떠하엿슬가를 짐작할것이다。그가담배를 檳榔에 比한것도 역시 담배의效用을 藥用에서 생각한것이겟스나 頗長하나 지금 그全文을紹介하면

『古之南人檳榔、謂醉能使之醒、醒能使之醉、飢能使之飽、飽能使之飢、蓋檳榔而能美之耳、今世嗜南草者 亦言飢能使之飽、飽能使之飢、寒能使之暖、熱能使之涼、其解之紛類檳榔、亦可一笑』

檳榔이 醉醒飢飽를 그뜻대로左右할수 잇슴과가티 南草도 역시 飢飽寒涼을 그뜻대로左右할수 잇다고 함이니 南人과世人을 빌어 그實은 自己意思를表示함에 지내지 안는다。이뿐아니라 谿谷은 어대까지 담배에對한 世人의誤解를 바르잡으려고 하엿스며 담배의發展이 장차百年後에는 [illegible]다를것까지 豫言하엿다。

담배逸話에 잇서 張谿谷以外에 아주興味津津한이가 또하나잇스니 그는곳 和蘭人「하멜」이다。그의事蹟을 적게말하면 孝宗四年(西曆一六五三)八月十五日에 그一行卅六人이 濟州島에 漂着하야 京城에와서 軍役에充當한바되어 十四年동안 온갓苦楚를 다겪다가 顯宗七年(西曆一六六六)九月初四日에 朝鮮을 脫走하야 長崎를 거처 二年後그本國和蘭에 歸着하게되어 그前後苦況을 적은 『하멜』의漂流記를 刊行하엿다。그後佛獨英等의 飜譯이되어 歐米에 朝鮮이 歐洲에紹介된것이 이로부터이다。

그런데 『하멜』漂流記中에 담배에關한 興味잇는 記事가 잇스니 그說은 아래와갓다。

朝鮮은 韃靼을 티스(勅使?)또는 오랑케 라고 呼稱하고 우리나라(和蘭)를 남반국이라고 부르니、이(남반국)는 본래日本人이 葡萄牙人을 指稱한 이름이엿스며 우리의實名을 그들(朝鮮人)이 아지못하므로 同一한(남반)이름으로우리를부른것인대 그이름을 배게된것도 日本人이 담배의栽培、製造및使用의法을 가르처준후 最近五六十年以內의일이 그때까지 그이름은 그들에게알려지지 아니하엿스며 日本人이 그들에게 담배의씨가、남반국에서 왓다고 일러주어、그들은 흔이 이담배를 남반괴라고 한다。現在그들사이에는 담배가 매우盛行하야 幼稚한 兒孩들이 四五歲때에 이미 이를배우기 시작하며、그리하야 男女間에 담배를 먹지안는 사람이 매히드물다。처음담배를 가저왓슬때에 그들은 銀의 重量으로 이를貿易하엿고 그理由로 남반국을 世界中가장훌륭한 나라의하나로 처다보게 되엇다云云。(李丙燾氏譯에依함)

여기 다바구를 남반괴라고한것은 잘못이나 男女老少間에 吸煙의盛行이며 最初담배의 高價이엿든 事實을 잘傳해준다。

人間學의 對象과 그 本質的 制限 (五)

金基錫

人間은 時間에싸히면서 또자기를限定하는일에잇서서 그자신存在의 世界속에參加하고 아울러 그속에서 人間을 한개現實的인 秩序로主張한다。이한개人間의 秩序란 어떤構造및 聯關을가지는것인가。우리들은 이人間의 秩序속에 먼저 『나』라는것이잇슴을 안다。그리고 『나』와 마조서는 『그대』란것이 잇슴을 안다。『나』는 어데까지던지『그대』와구별되지 안어서는 안된다 『그대』가 가진것을 가지지못하고 『그대』가 가지지못한것을가지지안허서는 안된다。『나』는 『그대』를 絕對的으로 否定하면서 말하자면 『나』란것을 建設하게된다。

『내』가 『그대』이요 『그대』가 『나』라고 하랴。이때는 『나』나 『그대』가잇는것이아니고 자기를 『나』또는 『그대』로 自覺하지못한 단순한 存在가 잇슬 따름이다。그러면 이『나』란어떤것일가 『나』란 어데까지던지『그대』와의 對立및聯關에잇서서뿐 자기를 措定하게된다。『나』는 『그대』를 否定하고 『그대』는『나』를 否定한다。『나』는 어데까지던지『나』요 『그대』가아니고 『그대』는 어데까지던지 『그대』요『나』가아니다。『그대』는 『나』를헤아릴길이업고 『나』는 『그대』가무엇인지를모른다。그러나 『나』는 『나』면서 그대로『그대』이고 『그대』는『그대』면서 그대로『나』가아닐가。『나』는 『그대』에게서 『나』아닌 『그대』를 보면서 겨하야 『그대』는 『나』에게서 『그대』아닌 『나』에 接하면서 겨하나니 『그대』에 邂逅하는것이 아닐가。

絕對的인他者 이것은 어떤共通地盤우에서의 絕對的他者가되어야한다 『나』와 『그대』는이한개絕對的否定을 媒介로하는데서 비로소 서로서로의손을 서로마조잡고서게된다。서로손을서로마조잡고섯는 『나』와 『그대』 이『나』와『그대』가 서로남을通하야 자기를 理解한다는事實은 한개重大한 意味를가저온다。

人間은 나와그대에 잇서서 주어지면서『나』와『그대』에 그치지안코 나아가 우리『들』을構成한다。『나』와『그대』는 『나』또는 『그대』로서의 人間이아니고 본대『우리』로서의人間으로주어진다。『우리들』로서의 人間 이 『우리』로서의人間은 자기와마조서는 人間의秩序만이가지고 『우리』또는 人間의秩序만이보이는 한개根本現實이아니면안된다。이우리들로서의人間은 자기와마조서는 環境을 가저야한다。자기와마조서는 客體의世界를 가저야한다。우리들은 여기서 歷史와自然의問題를 提起한다。人間은 무론 그자신 한개自然이되기도한다。그러나 人間은 어데까지던지 단순한自然에그처서는안된다 부단히 自然과마조서면서 自然을 制約、變改하는 主體의意味를가지지안허서는안된다。自然의편에서보면 自然이 부단히 人間에게 대여들고 人間을 부단히制約、規定하게된다。그러나 하여간 人間에서보나 自然에서보나 人間과自然이서로마조선다고보지안허서는 안된다。

人間이 自然속에 싸혀마친다고볼때 거기에는 人間이잇는것이아니고 自然만이 잇게되고 설령 人間이잇다고해도 그것은 自然으로서의 人間이요 自然과구별되는 人間은 아니다。자기와 마조서는 人間이란것이업고 그대로 自然만이 잇다고하랴。이혼자만잇는 自然은 그자신의客體性을 일흐면서、기실 자기를 自然으로 限定할것조차 업게된다。

自然과 마조서는人間。이것은 무엇에잇서서 자기를 自然으로부터 구별하는것일가。自然에게서 찾을길이업는 어떤새로운 性格에 잇서서 자기를 自然으로부터 구별하지안허서는안된다。이한개의 새로운性格이란 적실할 意味의 歷史性이아닐가。歷史的存在、이歷史的存在인데서 人間은 자기를 自然으로부터 구별하게되는 또自然을 부단히 制約、變改하게되는 人間자신의 眞實한 主體性에 맛난다。

人間은 自然에대하야 자기를 歷史的存在로 限定한다。어때 自然은 人間의環境으로서의 意味를가지고 歷史的存在에 마조선다。이리하야 主體的歷史 客體的自然의相互限定에잇서서 現實의 世界는 歷史的 自然的인 久遠한運動을 持續한다。

哲學은 그發祥地인 希臘에잇서서 본대形而上學으로서 出發햇다。그리고 그것이 中世의神秘主義아래서 神學에기우려지는傾向을보이다가 다시『게르만』의 流床을 흐르면서 認識論 價値論의 새로운領野에내여달엇다。神學에顚落된哲學은 論議하기를 그만두고 위선 形而上學에잇서보더라도 그것이 存在의現實構造를생각하는것이아니고 精神이니 物質이니하는 超越的實在를 想定하는데서 實在의學으로서가아니고 한개단순한 觀念論이니 觀想主義에 떠러지는것이아닐가 이한개虛構에사로잡힌 觀念論唯物論보다는 오히려 最初의實在論者인 『타레스』가 한개現實的存在인 물을 一切의根源이라고 가르친데서 우리들은 存在論으로서의 形而上學의 原始形態를 發見하게되는다。

漢詩募集

題…松
押…松
限 十二月十日
(薄謝進呈)

隨筆 肥大漢의 歎息 ③

徐光霽

肥大漢은 술도잘먹고 옷감도 남보다 더들고 그때선 남보다 거름은 잘못거름으로 飮酒代被服代 交通費가튼것이 만하드름으로 아마造物主가 肥大漢에게는 그리 赤貧은 아니주는모양이다。

春間에서 普通하는말은 살이 좀찌면 富者가 된다고하는 意味도 肥大漢이되면 돈이 그만큼더드는모양인데서 나온것갓다 普通人이면 택시에 四人이탈수잇서도 똥똥이가 넷이모히면 택시를 두대를불르게되니 飮酒뒤의 快樂보다도 똥똥이들에게는經濟的苦痛을 남겨주는것이다 肥大漢일수록 肉類를 조와하고 삐루를 잘마신다 그러니自然法則에依하야 점점더 똥똥해지며 歎息은 더늘어가는것이다

肥大漢으로서 여름이 닥처올적에 그憂鬱한 顔面表情은 어찌比하랴!! 홍소리를치서 屠獸場에 드러가는황소얼굴에 어찌比하랴!!

暴陽에 견듸다못해 잠뱅이바람으로舍廊에나가 비할개를 피고 大人 字形으로 滿開된姙婦의 배가튼것을 내놋고 씩씩하며 누어잇는꼴이란 맛치 오양간에서 도야지가 볏이너무 뜨거워 뒤울타리에가서 쓰러저 꿀꿀거리며 누어잇는꼴과、어찌 近似하다하지안흐랴? 더구나 키가적은데다가 몸이 너무 가르퍼진 肥大漢은 오롬에 땀때문에 여름은 生地獄이며 心臟이弱하야呼吸의波數가 제운것을 [illegible]보는사람으로하여금 안타까운 感을 자어낼것이다

이럼으로 똥똥이는 가끔 歎息의 피에로가 되나니 喜劇俳優이나 演劇舞臺가튼때에 똥똥이를 내노코 재조를 피게한다 그러면 觀衆은 그똥똥이를 보고 와하고 웃는다 이얼마나 가혹한人間이냐? 무엇으로써 數千觀衆을 대번에 와하고 웃길수잇슬것이냐 그러나 웃음을주는똥똥이의歎息은 흙이나리면 그의 두눈에서 구슬가튼 눈물이

그러나 喜劇俳優이나 演劇의舞臺에서는 自己의 서름을 감추고 남을 웃겨주는 偉大한善人의 똥똥이를 間接볼수잇다

여름이면 밥을 먹어도 땀이나고 술을마셔도 땀이나고 거러도 땀이나고 안저잇서도 땀이나니 造物主가 이宇宙에 모든物體를 만드를적에 一長一短이 잇다고 한것은 人間으로써 善良하고 귀스럽고 탐스럽고 우슴의 源泉인 肥大漢에게 여름에 苦痛을 준것이다。

肥大漢처노로 한번은 누구나

이와反對로 말러깽이의 어려운것을 그들이알것인가! 광대가 나와서가진 재조를 다되 다하드래도 껄껄웃고拍手나할지언정 으아소리를치며와하고 우슬리는업슬것이다

그러니 이똥똥이야말로 얼마나한 善의結晶體인가를 알수잇지안는가? 꼽추나 난쟁이를보고피도라서서 우슬지언정 男女老幼를 莫論하고 입을버릴수 잇는限度까지 버리고 웃는 우슴을 우리는 人間社會에서 그리차저볼수업슬것이다

減食과 藥을 써보지 안는 사람은 업슬것이다。減食을 하면 節制잇게 飮食을 먹어 더 살이 찌며 藥을 먹으면 조곰도 效果가 업스니 어쩌하랴 그리하야 나중에는 담배를 헤가갈려지도록 피고 睡眠不足이면 말는다는 말을 들어 컵피를 여러잔식먹어 잠을 아니오도록하여도 워낙 여러날 疲困하면 더困하게 잠을 잘 자고 커피가 듯것은 胃腸에 免疫性이되여 암만먹어도 睡眠에는 別作用을 안하게된다。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應募期限은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短篇 四百字原稿用紙五十枚以上七十枚以內로하되 한글로 떼여쓸것
賞‖一等一篇 五十圓、二等一篇 卅圓

◇戲曲 三幕以內 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로하되 上演할수잇는것
賞‖一等一篇 五十圓、二等一篇 卅圓

◇詩 長短은 別로制限업고 一人數篇應募無妨
賞‖一等一篇 五圓、二等若干篇 各三圓

◇時調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民謠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童話 四百字原稿紙十五枚以上二十枚以內로하되 한글로떼여쓸것 入選若干篇
賞‖每篇 十圓式

◇童謠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野談 百字原稿紙 五十枚以上 七十枚以內로하되 字句를 떼여쓸것
賞‖一等一篇 卅圓、二等一篇 十五圓

◇傳說實話 그內容은 오즉 소에關한 것으로써 制限하되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入選若干篇
賞‖每篇 十圓式

注意〔應募된作品은 入選落選을 勿論코 一切返還치안흠 / 보내실때는 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쓸것〕

朝鮮日報社學藝部

「조선어 표준말 모음」 (17)

첫재、가튼말(同義語)

(一) 소리가 가깝고 뜻이 꼭 가튼 말

[ㅅ이 줄음을 취함]
그야말로(副)眞所謂
그얏말로
더럭(副)過度
덜석
절석
무우(名)菁根
무수
채반(名)[illegible]
챗반
야경스럽다(形)夜間騷擾
사경스럽다
●ㅇ의 增減
[ㅇ이 더함을 취함]
강파르다(形)峻
가파르다
농어(名)鱸魚
노어
땅(名)地
따
뒹굴다(動)轉
뒹굴다
뒤구르다
뒤굴르다
붕어(名)鮒魚
부어
콧중배기(名)코의腫物
콧주배기
콧사배기
콧주버기
콧배기
웅큼(名)掬
우큼
웅그리다(動)欠頭
으그리다
잉어(名)鯉魚
이어
[ㅇ이 줄음을 취함]
마다(助)每
마당
조용하다(形)靜
종용하다
●ㅈ의 增減
[ㅈ이 더함을취함]
팡주리(名)[illegible]
팡우리
누룽지(名)焦飯
누룽이
누룽갱이
밤낫(副)晝夜
밤나
부검지(名)[illegible]
부거미
찢어지다(動)裂
찌어지다
[ㅈ이 줄음을취함]
가리마(名)頭界線
가림자
건더기(名)羹中物
건더지
건덕지
건지
불꾸러미(名)火包
불꾸럼지
부스러기(名)屑
부스럭지
부석지
조가비(名)貝殼
조갑지
아가미(名)鰓
아감지
아궁이(名)灶口
아궁지
알량하다(形)無價値
잘량하다
질량하다
올가미(名)活結子
올감지
오라기(名)細長切片
오라지
●ㅊ의 增減
[ㅊ이 줄음을취함]
개미(名)연줄에먹이는것
갱치
도랑(名)小溝
돌창
●ㄷ의 增減
[ㄷ이 줄음을 취함]
끄나불(名)紐屬
끈타불
걸어앉다(動)踞
걸터앉다
걸앉다
●ㅎ의 增減
[ㅎ이 더함을 취함]
꿇다(動)跪
꿀다다
끓이다(動)沸
끄리다
가만히(副)靜
가만이
공연히(副)空然
공연이
괜히(副)공연히의略語
괜이
고요히(副)寂
고요이
넉넉히(副)裕足
넉넉이
너희(名)「너」의複數
너의
너이
능히(副)能
능이
똑똑히(副)明白
똑똑이
마땅히(副)當然
마땅이
바야흐로(副)方
바야호로
분합(名)대청앞障子
부납
불현듯이(副)急遽
불연듯이
시키다(動)使令
식히다
전혀(副)全
전여
저희(名)小生等
저의
조용히(副)靜
조용이
종용히
안간힘(名)內憤發力
안가님
오히려(副)猶
오이려
외려
[ㅎ이 줄음을 취함]
가까이(副)近
가까히
꼼꼼이(副)仔細
꼼꼼히
과녁(名)貫革
관혁
고이(副)麗
고히
구렁(名)壑
굴ㅇ
기어이(副)期必
기어히
긔여히
그여히
나이(名)年齒
나히
노엽다(形)怒
노협다
모이다(動)會
모히다
무너지다(動)壞
문허지다
반가이(副)歡
반가히
번번이(副)番番
번번히
보이다(動)示
보히다
부아(名)怒氣
부하
부화
부엉이(名)鴟
부형이
부엉덕새
쎄이다(動)[illegible]
쎄히다

讀者對話室

▲本人이 [illegible]하는데 [illegible]하고 [illegible]이잇사오니 數百町步以上의 [illegible]所在地를 아시는분이잇거든 面積、所在地、地目、所有者의 住所、氏名及 現時價、[illegible]、工事費、其他參考事項을 通知하여주시면 [illegible]人士에게는 相當한謝禮를하겟습니다 但千萬坪도有望한것은無妨。京城府明倫町三의一五三 金洪在

▲諸者여러분中에 日本內地에서發行하는月刊誌『懸賞界』의發行所를 아시는분이게시거든 左記住所로 下敎하여주심을仰望 咸南永興驛前一五一 姜龍七方 慾知生

▲누님、지금어데가게십니까 꼭누님이 세상을 떠난것갓사외다 누님의편지를 못본지는 벌서 꼭삼년이되엿사오니 저는도라간봄부터 서울에와서잇고 고향에홀로게신 칠순의늙으신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노세월을보냄니다 사러게시다면 왜편지 한장이업습니까

제 누이는 今年三十四歲로七八年前부터 木浦光州大正町金堤井邑、방면으로 職業女性으로헤맷사온대 姓名은 韓百龍이라고 합니다 或아시는분이게시면 通知해주시면感謝하겟나이다
京城府漢南町五四八 李仁容 方韓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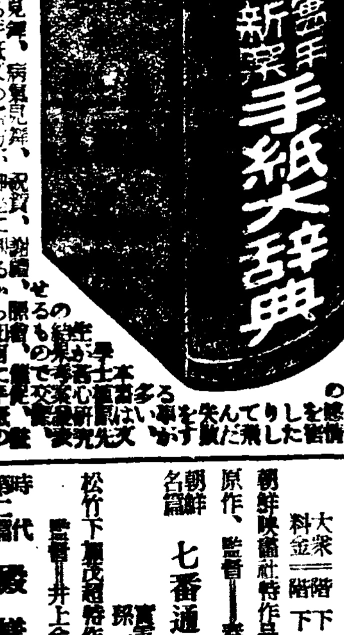
▲獨逸製提琴高級品形便에依하야定價로讓渡코저합니다 有意하신 분은電話로問議하시압 電龍七〇〇番 李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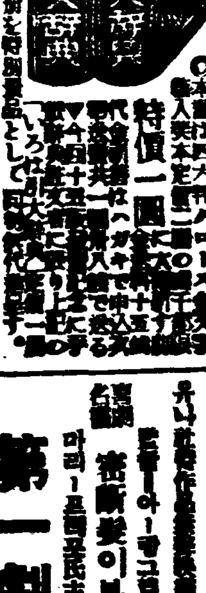
▲讀者諸氏中 現在市內에서 바이오린個人敎授하시는분의 住所氏名及 그一個月의 謝禮金은大略幾何이온지 社交室을 通하야或은 左記住所로下敎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市內玉仁町一七〇의四 尹在英

★曆★

十一月廿二日(日) 舊己亥十月大(初九日) 戊申·土·畢·收

●小雪二十二日(舊初九日)
●大雪七日(舊廿四日)





●手紙上手は一生の徳！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交際や商取引に手紙が上手だと人から尊敬され何事もうまく[illegible] 下手では堅も同様で思ふ事が充分表はせず[illegible]

文例、暑中寒中の時候見舞、病氣見舞、祝賀、[illegible] 弔慰文を初め凡ゆる手紙文の書方が[illegible] 下手な人でも少しも頭を痛めずスラ〳〵と[illegible]

(不附送金)

特價一圓

「常用漢和大辭典」定價一圓の一冊を特別景品として[illegible]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

●模範的頭痛藥！ 胃腸을안상한다 ノーシン● 노-신

十一月二十一日부터三日間大公開 最高篇鑑賞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 正午十二時 二回 [illegible] 三回 七時부터始映
大衆料金 階上[illegible]十錢 階下十五錢均一
朝鮮映畵社特作品 原作、監督…春史 朝鮮名篇 七番通小事件 富雲童、尹學實、探一平、盧璇城
松竹下加茂超特作 監督…井上金太郎 時代劇 第二篇 殿樣と[illegible]
[illegible]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十一月十九日부터三日間 白熱的興味活劇映畵의精華版！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上映 낮 一時、밤 七時上映
◇米國달라스프러덕슌特作日本版 [illegible]
冒險大活劇 冒險王달맛치 世界的鳥人리차드달맛치氏主演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音樂映畵 夜每八時
◇マキノ超特作 時代劇 切られお富
桃花劇場

二十一日ヨリ二十四日マデ 四日間 階下十錢均一公開
大同怪童 東龍子 主演 マネキン大將
三城輝子 松山宗三郎 主演 「女ターザン」 山獄魔女
シャーレー・テンプル嬢 主演 ベビーお目見得
每日晝夜三回興行 ヒルの部 一、三〇 ヨルの部 六、五〇
中央館

朝鮮日報 釜山支局

冷え性に！

이것을 마시라！ 即時體內가훗훗군더워지고、精力도잇서서、身體는 大端히活潑하게된다、더욱이連用을하면、다시 더조흔効果가잇다고하는것은 이한잔이마실때마다血液을더조케하고貧血로因한冷性을根本的治癒로引導하는것이다、

補血強壯 ぶどう酒

赤玉ポートワイン

포-도와잉

連載野談 (一六七)

布囊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不許轉載上演)

마저죽기소원(二六)

리선전관이 한강에서 백사공의 구원으로 물에 빠져 죽으려고 결심하얏든 그뜻을 일우지못하고 나종에는 자살하기는 어려우니 남에게 마저나 죽을작정으로 장안바닥에 싸홈이 붓는 마저죽을곳을 차젓다.

그래서 천천히 완보하야 계동골목 새골께나 모아서 왁자직걸하는곳이 보이기만하면 반드시 조처가서 뭇매를 맛기위하야 일부러 여러사람의 발등도 밟고 엽구리도 쥐어질르며 까닭업시 욕설도하야 톡톡히시비를 청하얏다.

그러나 그사람들은 하나도대구를 아니할뿐아니라 그네들끼리 서로 시비를하든것 까지도 회지부지하고 한사람식 두사람식 뿔뿔이 이리로 저리로 헤여저갓다.

리선전관은 이와가티 한강에서부터 무악을 들어오는때까지 여러사람이 모혀잇는곳。또는여러사람이 시비를하는곳。그 밧게 술주정군이 떠드는곳은 하나도 빼어노치를 아니하고 지성으로 조처가서 역시 먼저와가티 일부러 발등도 밟고 억개도 치고 엽구리도 질르고。또는 시비하는 자리면 떠퍼노코 그 시비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을 부뜨려 내여서 그시비를 가로마타 가지고 새로 시비를 채렷다。

그러나 어느곳。어떤、경우를 막론하고 여전히 그 여러사람들은 옹당 시비를 채리게되겅우엿만은 채리지를 아니하고서 실슬실슬 헤여지고 말엇다。

「이상도한일。까닭업시 발등도 밟고 억개도 쥐어 박고 엽꾸리도 질르고 시비도 가루마터 새로 시비를 맨들엇스니 죽음만 피가잇고 피줄이 떠운 사람이면 옹당 시비차로 떠릴것이어늘 모두 뿔뿔히 헤여지니 과연 이상도한일 못한 사람이 모두오장육부가 빠진 것껍대기뿐이란 말인가。내가 마저죽을팔자 까지도 타고 나지를 못한 탓이란 말인가。허허。자긔의 목숨을 자긔의손으로써 끈키가 어려운것은 고이치아니하나 그러나 남에게 시비를 청하야 뭇매를 맛고 그밧길을 못 주목에 마저죽기는 쉬운일인줄 그러키를 나는 그동안 행한짓이 미처못하고 마저죽을 짓을하얏거늘 그마저죽기를 소원하는것도 이대지 어려우니 참으로 이상한 할일。」

하며 리선전관은 마저죽기도 어려운것을 탄식하고 여전히사람이 만히 모힌곳을 엿보면서 걸엇다.

리선전관이 그와가티 마저죽기도 어려운것을 스스로 탄식하면서 그럭 저럭 당도한곳이 선혜청(宣惠廳)아피엿다。

이때 선혜청 아페는 수백명 사람이 모혀서 왁자 직걸하는 품이 과연 그동안 여러사람이 모혀든곳에 비할수업시 모혀선 사람도 만코 떠드는품도 굉장하며 또는 그중에서 팔을 내두르며 주정하는 주정군도 상당히 만햇다。

대저 선혜청 아페 그와가티 만히 모힌 사람들은、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선혜청으로부터 환자쌀을 타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엿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환자쌀을 타가지고 나오자 일직 그들에게 빗을준 빗쟁이가 그 빗을 바드려고 빗가를 사람을 붓잡어 가지고 달나 거니 못주겟다거니하는 시비가 벌어젓고、또는 외상갑스로 시비。취해간 쌀을 쌀로 도루 내라는시비。이시비、저시비가 버려지자。그 시비를 구경하려 모혀든사람。이럭 저럭으로 탁백이 잔이나 어더먹고 공연히 엣튀하면서돌아다니는 사람들이한데 어울려 그와가티 떠드는것이엿다。

『올타! 이제는 마저 죽을곳을 어덧다。」

하고 리선전관은 두주먹을 불끈쥐고 그 모힌사람들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놈들아!。뭇엇이 어쩌고엇재?。」

하고 이사람의 뺨도 후려갈기고 저사람의 뺨도 후려갈기는중 특별히 철대가 크고 힘깨나잇서 보이는 몃사람을 번쩍들어 둘러메 짓첫다。

별안간에 뺨을 맛고 별가에 제이고 둘러메 붓친 사람들은얼른이지를 아지못하야 모든주먹을 불끈쥐는 사람。허리띄를 다단히 매는사람。선혜청 아픈 뻘끈 뒤집혓다。

이때 한 모퉁이에서 부러 우렁찬 목소리로써

「저놈 밟버라!。」

하는 아우성소리가 크게 들렷다。

朝鮮演劇協會 部署를全部更新 —十八日臨時總會에서

朝鮮演劇協會에서는 얼마전創立公演을 府民館에서 열어 斯界의 注意를 바든바거니와 지난 十八日 午後二時 臥龍町會館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同會의 陣容을 一層 强化시키기爲한 部署變更을 討議決定하얏는데 當日 決定된 部署는 다음과갓다

▲文藝部 李光來 朴鄕民 姜文弼 李丙爽 朴東和 白友三

▲演出部 吳禎民 朴春明 許瑣 白友三

▲演技部 朴化三 朴學 尹北洋 姜洋洋 李白姬 韓順子 朴東和 李海燮 柳邦 金一松 李青立 諸葛春 宋英愛 姜貞愛

▲美術部 金一影 許瑣 諸履術

▲企劃部 崔榮台

라디오

二十一日(土曜)

◇午後六時 어린이科學〃無線電氣이야기〃 韓德奉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週末時事 李元坤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三) 第二高普 金雄珏

◇同八時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高永泰 大笒 朴鍾基

◇同八時一五分 (大) 피아노獨奏 一、幻想曲 F短調…쇼팡作品 二、小品세개…모찰트作曲、브조-니作曲 (一)지-그 (二)볼레로 (三)變曲奏 三、자장가…尾高尙志作曲 四、前奏曲…드뷧시作曲 五、軍隊行進曲…슈-버-트作曲 레오시로타

◇同八時四〇分 流行歌 一、살지는季節……文湖月曲 二、長山串打令……孫牧人曲 三、不如歸……文湖月曲 四、길섬에 피는쏫……金海松曲 五、無情月花……文湖月曲 六、안달이나요……金海松曲 七、베짜는 각시……文湖月曲 伴奏 DK管絃樂團 李銀波

◇同九時五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二、倂唱 가、短歌 竹杖芒鞋 나、唱劇調 春香歌 池南洙 鼓手 池龍九

二十二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俗曲 一、念佛 二、打令 三、신아위 四、굿거리 大笒 韓成俊 奚琴 方龍鉉 杖鼓 金德鎭 管絃 池龍九

◇同一時二〇分 (레코-드演奏)

◇同二時〇〇分 平壤放送局開局式實況과余興

=平壤放送局開局祝賀放送=

◇同六時 兒童劇〃잠자리〃 百合어린이會 指揮 朴義

◇同六時二五分 祝辭(平壤放送局開局紀念) 京城府社會課長 金永祥

◇同七時三〇分 歌曲 一、言樂 二、羽樂 三、編樂 四、編 五、太平歌 男唱 李炳根 女唱 金蕉紅 玄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同八時 바이올린獨奏 協奏曲 A短調 作品 二三…비오티作曲 第一樂章 모데라-토 第二樂章 아다지오 第三樂章 아자타토・앗사이 피아노 英桂 美理植

◇同八時三〇分 에여부外 一、에여부 二、오봉산 三、밀양아리랑 四、흥타령 五、사발가 六、방아타령 細竹 高一心 奚琴 金彩鎭 姜洪樂

◇同九時 라듸오드라마 〃春香傳〃—獄中場面—

—配役—

成春香……金映玉

李夢龍……金一英

月梅……金福鐘

香丹……兪貞任

許奉事……李寅

獄司丁甲……孟晩植

〃乙……車日光

〃丙……李求樂

〃丁……太白

〃戊……金鐵乙

門間 使令……成光杏

出演 劇藝術研究會 效果 李王鍾一台

◇同一〇時〇分 朝滿交換放送 (滿洲로부터) 平壤放送局開局祝賀放送

一、祝辭—新京으로부터— 滿洲電信電話株式會社營業部長 前田直造

二、滿洲新歌曲—奉天으로부터— 一、漁光曲 外五曲 奉天新滿洲歌曲團 指揮 白新詩

二十三日(月曜)

◇午後〇時五〇分 놀양外 一、놀양 二、앞산打令 三、뒷산打令 蘇完俊 韓仁學 柳開東

◇同一時二〇分 洋樂(레코-드演奏)

—平壤放送局開局祝賀放送—

(平壤으로부터)

◇同六時 (平)記念講演 平南道參與官 宋榮煥 平壤商工會議所副會頭 金能秀

◇同六時三〇分 (平)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양양범버꿍… 二、獨唱 회파람(李) 三、齊唱 새서방새색시…姜信明曲 四、獨唱 기러기(朴)…朴泰俊曲 五、齊唱 JBBK…朴泰俊曲 六、獨唱 할머니노래(朴)…朴泰俊曲 七、獨唱 귀또람이(李)…尹克榮曲 八、齊唱 우리집콩나물죽…朴泰俊曲 西門外主日學校少女讚揚隊 獨唱 李應天 朴春寶 伴奏 李應淑 指揮 姜信命

◇同七時三〇分 (平) 西道民謠 一、긴아리 二、숭화라령 三、금발타령 四、회든가 高彩鳳

—繼續하야—

一、愁心歌 二、역금수심가 三、도라지打令 四、寧邊歌 金松仙 朴明芳

◇同八時一〇分 (平) 流行歌 一、푸른地平線(宋) 二、木浦의눈물(張) 三、휘동백꽃(宋) 四、서울새우는밤(張) 五、伊太利의뜰(宋) 六、마음의봄(張) 七、사랑없는사랑(宋) 宋達協 張世貞 伴奏 平壤放送管絃團

◇同八時四〇分 (平) 피아노二重奏 一、妖女의춤 랫셀作曲 二、第五交響樂中에서 베토벤作曲 金明愛 崔敏禮

◇同九時(平) 다리굿

◇同九時一〇分(平) 合唱 一、歌劇『단호이저-』中에서…빠그네作曲 二、봄소식…베-벨作曲 三、萬王의王…모-차르트作曲 四、歌劇『파우스트』中에서…구노-作曲 五、第九 交響曲中에서『歡喜의노래』베-토벤作曲 平壤音樂協會 伴奏 金聖南 指揮 金世炯 張明花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一、南鮮民謠 六字백이 二、伽倻琴散調 三、京城民謠 一、靑春歌 二、景福宮打鈴 三、漢江水打鈴 吳翡翠 丁淑嬉 韓成俊 張香蘭 張鐘敏 金永根 鼓手 大笒

洋服과 防寒品

어데가던지 話題

驚異의大産、大阪、人氣의焦點

絶對로싼市價의半價

何故로싼가

責任付不合意返品取替返金自由

全部自家工場에서生産한 大衆的直賣이오니 곡利用하십시오

註文은葉書로申込하십시오 便宜上代金引換으로送荷함
絶對保證=品質耐久絶對保險반듯이地方小賣價格의半價以下
換品返金=合意치안은것은換品返金自由
送料實費=는買主負擔할것荷送費는當店負擔한다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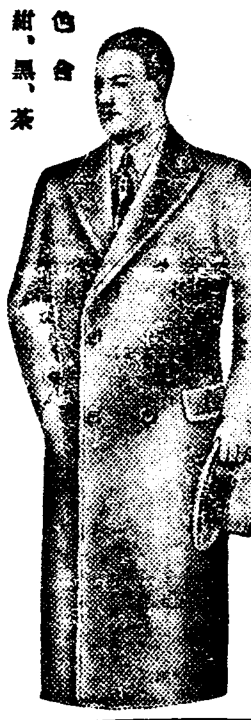
代表電話東五二一四番 四八七三番(振替名古屋一七六)

カワウソ代用襟毛皮附ペロアーオーバ
襟。毛。附
色合、紺、黑、各ダンボール箱入一着値
丈鯨尺 二尺八寸 同値、片前型 十七圓六十錢
丈鯨尺 二尺九寸 同値、兩前型 十八圓六十錢
丈鯨尺 三尺一寸
表生地極上ペロアー、裏絹朱子、一見四五十圓の高級品

大衆防寒グランド羅紗オーバ
丈鯨尺 二尺二寸 同値、一枚値 圓圓八十錢

高級霜降新型厚オーバー
片前型 斜線柄 二尺八寸 同値 十圓
兩前型 斜線柄 二尺九寸 三尺・三尺一寸 同値 十五圓
色合灰、茶、生地高級ペロアー、絹朱子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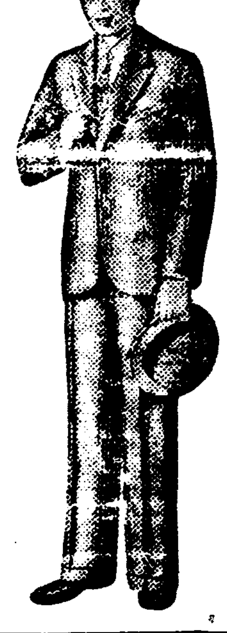
本ラクダ羅紗高級オーバ
色合 紺、黑、
丈鯨尺 二尺八寸 同値、片前型 十八圓
丈鯨尺 二尺九寸 同値、兩前型 十九圓
三尺
表本ラクダ生地 本絹朱子裏別高級仕立



極厚高級メルトンオーバ
色合 紺、黑、茶
丈鯨尺 二尺八寸 同値、片前型 七圓八十錢
丈鯨尺 二尺九寸 同値、兩前型 八圓二十錢
丈鯨尺 三尺 三尺一寸

實用特製羅紗オーバ
色合 紺、黑
丈鯨尺 二尺七寸 片前型 五圓五十錢
丈鯨尺 二尺八寸 兩前型 五圓九十錢
二尺九寸 三尺

紳士用防寒トンビ
本ラクダ地 一枚 金十圓
高級ラクダ地 一枚 金二十三圓
裏本絹朱子總裏附
本ロスキン地 一枚 金十九圓
高級品ニテ極上ロスキン地ニテ本絹朱子總裏付キ市價三十圓以上ノ品ナリ何レモ鯨尺三尺四寸、三尺五寸、三尺六寸同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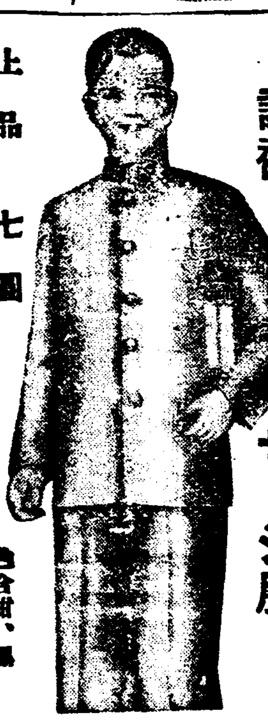


紳士用ウーステット地、背廣服
上品三ッ揃シルバー裏附 十六圓五十錢
特品三ッ揃アルパカ裏附 十九圓
本年流行ノ紳士用ウーステット最新柄霜色地ニ杉綾、縞柄、格子柄等アリ、年齡御指定下サイ大型中型小型同値

冬向サージ背廣洋服
三ッ揃高級品 一着 十八圓
三ッ揃特品 一着 十二圓五十錢
色合 紺、黑、
仕立入念一般向品
大型、中型 小型同値

紳士用メルトン背廣服
上品 三ッ揃 一着 十二圓
特品 三ッ揃 一着 十五圓
羅紗メルトン紺、黑 大型、中型、小型同値

紳士用特ピッケ地背廣服
小ミジントアセ柄の優良品ナリ、裏ハアルパカト絹朱子裏付
大、中、同値
特品
三ッ揃 十八圓五十錢



詰襟サージ服
上品 七圓
特品 九圓八十錢
色合紺、黑 大中小同値

縞スコッチ背廣洋服
青年中年向
裏ハ高級洋朱子裏
三ッ揃一着 十圓
大型、中型、同値

純毛水兵通學服
上下組合 一着値
各學校指定型
二尺八寸 一二年用 圓
二尺 三四年用 圓二十錢
二尺二寸 五六年用 圓八十錢
二尺四寸 女學生用 圓八十錢

高級羅紗女學生オーバ
一枚値
尺八寸 一二年用 圓三十錢
二尺 三四年用 圓大十錢
二尺二寸 三四年用 圓九十錢
二尺四寸 五六年用 五圓十錢
二尺六寸 女學生用 大圓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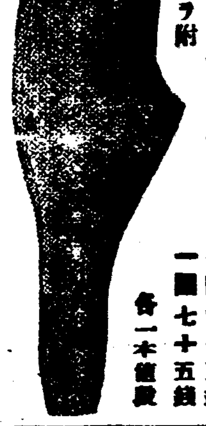
オペラマント
流行型
新型マント 女學生大好評品 高級ラクダ 各一枚値
二尺二寸 女小學生用 三圓八十錢
二尺四寸 女小學生用 四圓四十錢
二尺六寸 女學生用 四圓八十錢
二尺八寸 同 五圓六十錢

防寒コール天洋服
細コール天 バンド付 ネル裏付 三圓八十錢
絹コール天 バンド付 ネル裏付 三圓五十錢
◎折エリ、ダブルエリ、長ズボン、乘馬ズボンアリ大型、中型、色黑、茶アリ何レモ同値 上下一着値段

防寒別珍洋服
バンド付 ネル裏付 上下一着 三圓五十錢
◎折エリ、ダブルエリ、乘馬ズボン、長ズボン、大型、中型、小型何レモ同値御指定ヲ

防寒並型ジャンマー
絹コール天 一枚 一圓七十錢
別珍特品 一枚 一圓七十錢
折襟型袖平折型
各一枚値

高級防寒ジャンマー
羅紗厚地 スポーツ型 手袖腰毛糸ゴム附 三圓八十錢



乘馬型防寒ズボン
メルトン特上 三圓十錢
綾絹コール天タラ付 一圓六十五錢
別珍タラ附 一圓七十五錢
各一本値段

小學生羅紗マント
各頭巾付
男黑色
女エビ、茶紺 各一着値
二尺 一二年用 三圓
二尺二寸 三四年用 三圓二十錢
二尺四寸 五六年用 三圓五十錢
二尺六寸 高等用 三圓八十錢

柄幼年水兵服
水兵型 一枚 一圓八十錢
新衿型 一枚 一圓八十錢
大型一尺二寸男兒用ナリ六、七歲用小型一尺一寸、四五歲用何レモ同値御指定ヲ

防寒厚地フートオーバ
男女有リ御指定下サイ
尺四寸 四五才用 一圓八十錢
尺六寸 五六才用 一圓九十錢
尺八寸 六七才用 二圓十錢

カワウソ代用襟毛皮
三圓八十錢
素人にて自由に オーバ取附が 出來ます
防寒オーバ襟毛皮

防寒トンビ衿
カワウソ代用襟毛皮
一本 一圓八十錢 厚地毛皮

防寒帽子
飛行型寒防帽子
ボックス羊皮 特上品 一個 七十錢

幼年カワウソ代用ネグネット首卷
三四、五六才用
男女有り
一見三四圓の品
一本 八十五錢

防寒頭巾附羅紗外套 金釦附
各齡尺寸位 各一着値
二尺二寸 十一二才用 四圓九十錢
二尺四寸 十三四才用 五圓五十錢
二尺六寸 十五六才用 五圓八十錢
二尺八寸 十六七才用 六圓二十錢
三尺 十七八才用 大圓八十錢
軍隊用生地羅紗

黑羅紗通學洋服
尺二寸 一二年用 圓
尺三寸 三四年用 圓二十錢
尺四寸 五六年用 圓大十錢
尺五寸

羅紗男學生オーバ
厚地防寒用色黑、紺、茶有リ 兩前高級仕立 各一着値
尺大寸 幼年用 三圓大十錢
尺八寸 一二年用 三圓八十錢
二尺 三四年用 四圓十錢
二尺二寸 五六年用 四圓四十錢
二尺四寸 高等用 四圓七十錢

純毛メリヤスコットン
絹ラクダ色高級特品
一號特大 三圓
二號大別 二圓八十錢
三號厚地 二圓五十錢
各品一枚値段
上着ズボン同値

外出用鬼オーバスエター
本編 流行新色
特大大型 一枚 四圓五十錢
毛糸防寒品

トツクリ型アンダー
大大型 一枚 三圓

移舍짐실은배가顚覆 五名이一時溺死

其中船夫一名만은겨우救助

宣川郡 堂後浦近海慘事

【宣川】구차한 살림의 안정(安全)을 도시에서 어드랴고 이사하여 오든도중 배의 전복으로 동승한두명과함께 일가족 삼명이 물에빠저 죽은 비참한사실이잇다

선천군신미도묘사동(身彌島文酒洞)조인룡(趙仁龍)(三七)은 지난 십사일오전십시경 동면 동답동(東畓洞)선부 전국향(全國亨)(三八)의것는 목선에 가장집물을실고 륙지로향하여 나오든중 읍내지점인 당후포(堂後浦)부근에 당도하엿슬때에 갑작이 일어나는 풍랑에 배는 그만전복되여 일행륙명이 전부 물에빠젓는데 때마침 정주군갈산면(定州郡葛山面)리찬성(李賛成)의소유 어선(漁船)이 마침지나가다가 구조에 로력하엿스나 겨우 선부선국향만 구조되고 남은오명은전부익사하고 말엇다는데 더욱이 전긔 조의처 정(鄭)씨는 임신중으로 아가튼 비참한 죽엄을 당하고말엇다한다

◇遭難者氏名

宣川郡南面東海洞
(救助) 金國亨(三八)
同郡同面同洞
(屍體行方不明) 金九寬 妻
(屍體發見)同長男 韓德寬(十三)
金春化(七)
同郡同面文酒洞
(發見) 趙仁龍(三七)
(行方不明)妻 鄭 氏(二七)
(同 次男) 光 妻(三三)

少女窃盜逮捕

【平壤】평양부내 박구리(朴九里)바이창(朴仁昌)의 사녀 현숙(賢淑)(一七)은 십구일오전열시삼십분부터 세시간동안 숭의녀학교(崇義女學校)긔숙사에 드러가 긔숙사각방을사사히도라다니면서 팔뚝시계두개쇼운두개 세-타두벌 기타학생들의 물품을 절취하여 큰보에싸서 이고나오다가 학생들에게 발각되여 평양서에넘기어왓는데 이소녀는 이전에도 숭의녀학교긔숙사에 세번이나드러가 학생의물품을 절취해든것도 자백햇다한다

일오후 두시경에 만내아들에게 토지열두마직이만 유전하여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떠난 비참한 사실이잇다

그는 본시 더성리에서 빈빈이나 추수하고 지내다가 그외아들이 살림을 탕진하여 지금은 먹을것도 번번치 못한형편임으로 그를비관하엿지 아무도 업는틈을타서 농에서 제일조흔 옷한벌을 끄내입고 전긔와가튼 사실을 한것이라한다

雲中里에黎明인 永昌學院認可

【興南】흥남읍운중리(雲中里)는 흥남에 조선질소비료회사가설립된이래 질소회사를위한생활의원천으로삼고 각지방에서모혀든 직공과 일고로동자들로 일우워진 신흥빈민조밀으로교육긔관이 전무하엿섯다 이를크게유감으로 생각하여오든 동민으든금년삼월에 문영도(文永道)현중렬(玄重烈)양씨의적극적로력과 전동민의뜨거운열성으로 영창학원을설립하고 이래 생도구십여명을 수용하고 수업하는 일방 인가하부에 만흔힘을써오든바 전긔양씨와 전동민의 정성이 열매를맺게되어 지난십일일부로 인가가나왓다는데 이소식을들은 동민들은 환희하여 동학원에 만흔긔대를가지고잇다한다

全北道內耕地中 天水畓이六割强

道農務課서十個年事業으로 基本調查實施計畫

【全州】농업본위인 전북도내의 수답(水畓)면적은 십칠만삼천칠백여정보중 사할미만이 수리조합의 용수를 리용하는외 륙할이상이 소위 천수답으로 비가 업는해에는 흉변을 면치못할상태로서 그중에도 다소의 시설을하면 한해의 서기라도 수리의 우려가 업슬만한 안전답으로 곳칠수잇는곳이 상당히 잇다하야 도농무과(道農務課)에서는 전긔와가튼 토지를 개량코저래년도부터 기본조사비를 전문기금원으로 조직하고 십개년계속사업으로 도내불안전답을세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는데 조사한결과 전면 수리의 여망이 업는토지는 각군지주간담회(各郡地主懇談會)를 통하야지목변경(地目變更)과 농작물변경을 장려하야 전도적 농작지의 효과적리용을 도모하리라한다

은 대성황이엿다고잇다

選擧法違反한 運動員에罰金刑

【全州】과반완주군 도회의원보결선거에 당선한 리원구(李元求)씨는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의 취조를 밧는다함은 긔보한바와 과갓거니와 선거운동원이엿든전주대화정칠칠오번지(全州大和町七七五番地) 리범선(李範旋)씨와 완주군초포면(完州郡草浦面)박정득(朴正得)씨외 한사람에게 전주지방법원에서 오십원 삼십원식의벌금형이 나리엿다고한다

會寧公立商業學校 學年延長猛運動

有志連署陳情書提出

【會寧】회녕상업학교는 설립당시는 수업년한이 삼개년이고을종제(乙種制)엿든바 소화사년삼월에 수업년한은 그대로 삼년으로하고 갑종(甲種)으로 승격하여 왓스나 그간졸업생사회적대우며 생도의소질상 여러가지로 영향이 오년제보다 조치못함을 늣기여오든바 금년륙월에 동교후원회며 기타일반유지가운동하야 그실현성이잇든 오개년학년연장은 아직실현이 확정을 보지못하여오든중 일부여론에의하면 청진(淸津)에다 갑종오년제(甲種五年制)상업학교를 건설하기로되다는확보에 회녕일반유지는 학년개정운동에 영향이밋칠가 염려하야 신설학교에도오년제를 채용하면서 긔설되본교는 방치할수업는 사실이라 더욱이 그설비비용에 편하야서는 부담키로하야 이상여러가지사정과리유로 학무국장에 좌긔사씨의명의로 오개년개정진정서를제출키로되엿다고한다

會寧邑長秦申男 咸鏡北道會議員李容碩 會寧商工會頭前田政 會寧學校組合會議員尾崎幾平

醴泉署落成祝賀盛況

【醴泉】귀보=예천경찰서락성축하회(祝賀會)는 지난십사일부터 이일간에 사군련합봉술대회(四郡聯合棒術大會)와 남조선력기대회(南朝鮮力技大會)의주야두번의 전조선명창대회(名唱大會)가 잇섯는데장내는대만원을이루웟대만 원시장일대에까지물여드는 군중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

老婆飮毒自殺 家產蕩盡을悲觀

【漣川】지난시일이십팔일 오후아홉시경에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江華郡佛恩面德城里)에사는 고래순(高來淳)의모친 박씨는 년당 륙십일세의 로파로서 남어지세상을 더살수업다고 비상을 먹고 무수히 고민하다가 그의

水溫의不適으로 明太魚獲不振

例年가트면가장만히잡힐때 沿岸漁民極히焦慮

【咸興】함남의 특산인동시에 수산물중 왕좌를 점령하고잇는 명태어(明太魚)는 벌서 십일월중순으로 례년가트면 제일 성어기(盛漁期)임에도 불구하고 작금 한적에 대하야 칠팔태(駄)로부터 최고 십오태라는 극흉어를 계속하고잇서 어민들의 초려가 심하다 이원인은 기온이 아직도 례년보담은 노퍼 수온(水溫)이 노픈관계로 명태어(明太魚)의 대군(大群)회유가 늣게되는관계라고한다 그러나 명태어기는 다른것에 비하야 절버서 일월칠오일부터는 벌서 야간작업을 금지하므로 결국 어기도 뒤에 두달밧게는 더남지안햇는데 십이월에 대동어가 잇지안흐면 금년은 미증유의 대흉을 면치못하리라고 어민들은 극히 우려중이라한다

金泉消費組合

九個年의歷史가진、畢竟에는解體의悲運

【金泉】경북김천소비조합은의개월전부터 정리에 착수하야 그간수차의 간부회의를 열고정리중이든바 지난십구일오전 본정달성여관에서 경관입회하에 대판등지의 상품부입처로서 채권자가모이고 기타각처 채권자열석하에 청산회를 열게되여 조합전재산륙천여원으로서는 재무액으로물론부족함으로 일반조합원 칠백여명에게도 출자금을 줄수업서서 상품대와 일반채권자에게만 비조합 전재산을 인수하야 금액에따라 배당하기로 결의되여 금명간 전상품을 제삼자에게팔거나 경매에 부치기로 하엿는대 소비조합이 해체된 원인은 여러가지라 하겟스나 전부리사와 간부들이 김천사건으로 입옥되엇과 상업부진으로 당국의 간섭으로 인하야 구개년동안길며 김천조선인 상계에 큰자랑거리든것이 이번에 해체하게되여김천상계에 일대 손실이라고한다

誘致運動猛烈 煙草再乾燥工場

【淸州】충북괴산군청안(槐山郡淸安)에다가 황색연초(黃色煙草) 재건조(再乾燥)공장을 설키로결정되엇것을 계긔로 청주의숙안인 관제연초 제조공장유치달성에 전력하여와섯는데 저간 여러가지 문제로 설치가망이업섯든바 이시가를 리용하야청주유지모모제씨는 긔어코 달성코저 그방면에절중하야 맹운동을하고잇다고한다

任實郡의猪禍

【全州】임실군 둔남면대명리(任實郡屯南面大明里)뒷산에서는 산도야지(猪)가 낫타나서 그동리 리경주(李京周)의 둘째딸 옥지(玉只)(一)에게 침범하엿스나 때마츰 동리의다수청년에게 발견되여 생명만은 구출이 되엿스며 맹도야지는 그곳에서 잡엇다한다

지고잇다한다

評議會를開催 積極活動開始

【淸津】십오일에 계성을본 청진건착망어업동조합(淸津巾着網漁業同組合)은 지난 십팔일 오후일시부터 본정(本町)환이운송점(丸二運送店)본상에서제일회 평의회(評議會)를 조합장김재수(金在洙)씨사회로 열고 본조합의 원래취지에 의하야 구체적활동을 개시할것을 결의하고 즉시 건착망허가원(巾着網許可願)을 제출하도록하는 한편 진정원(陳情員)을보내여 당해루관계당국에진정서(陳情書)와진정하야 목적달성에 노력할것을 결정하고 허젓다는바 관계당국에서도 종래부터 이런종류의운동에는 대체로호의를 가저온터임으로 금번운동이 상당여중소업자의사활문제인만큼 신중히고려할것으로보아 대체로 운동의효과도 순조로 진행되리라하야 관하는편이만타한다

慶南災害復舊工費 百五十一萬餘圓

今年度부터三年間繼續으로 來月上旬에正式決定

【釜山】경상남도에서는 재해복구공사를하고자 그간 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는동시에 총공비를 요구중이던바 지음 그금액이 결정되엇스므로 본격적으로 계획수립을 하던바 지난이십일에 총공비 일백오십일만구천백십사원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삼개년계속사업으로하기로결정하고 십이월상순에 림시도회를 소집하야 정식결정하기로하얏다는데 그공사별공비는 삼등도로(三等道路)이십일만원 등외도로(等外道路)륙십이만원 지방항만(地方港灣)십입만구천원 지방하천(地方河川)십사만구천원 소어항(小漁港)륙만삼천원 사방공사(砂防工事)륙만일천칠십구원 보통학교(普通學校) 간이보습(簡易補習)학교 이십이만삼백이십륙원 소학교(小學校)삼만일천삼구원 농어창고(農業倉庫)일만일천구백원 공동작업장(共同作業場)삼만삼천칠백원등 이라하며 금년도에 시행할공사비는 오십일만오천구백십사원 제이년도 륙십만원제삼년도 사십만삼천이백원이라한다

元山仲町한복판에 覆面强盜犯出現

元山署에서犯人搜查

【元山】지난 십구일 오전하시에 원산에서도 가장 번화한 거리인 중정(仲町)한복판에 대담무쌍한 복면강도가 나타나서 일시소동을 일으켯다 중정일정목지화상 오향상점(吾鄕商店)의 뒤문뒤창을 깨치고 복면한강도한명이 이척오촌가량되는 일본도를 들고 침입하여 주인녀자를 협박하엿스나 그만아고 고함을 처는바람에 그만아무소득업시 종적을 감추어버렷다는데 원산서에서는 즉시 비상선을 느리고 수사중이나 아즉 범인을 체포치 못하엿다고한다

金堤殺人强盜犯 死刑判決言渡

【全州】김제군봉산면흥마리(金堤郡鳳山面興馬里) 박송근(朴松根)(三三)은 체포된이래 엄중한취조를 밧는다함은 긔보한바와가거니와 지난십구일에 전주지방법원 상야(上野)재판장으로부터 사형(死刑)을언도하엿는바 피고는 사형의판결을 밧자 안색이창백하여지며 실신상태가되엿다는데 피고는 전긔판결을 불복하고 공소의수속을하엿다한다

地方人事

▲李敦宰氏(本社金泉支局長) 十月十九日金泉郡鳳山面自宅에서逝去

▲伊藤赤吉氏(新任咸鏡北道內務部長) 新任人事次本報平壤支局來訪

戰慄할强盜事件 今年벌서卌六件

其中九件은아직未解決中으로、

搜查陣을去益强化

【平壤】조선의시카고 평양은범죄의도시의 본령을발휘하여 가을부터 강도사건이 련발하여전부민에 큰공동을 일으키고잇거니와 금년일월이래 금일까지 평양부내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은 전부삼십륙건으로 그중에서 이십칠건은 범인을검거햇스나 남은 아홉건은 미해결중에잇다 이아홉건이라는것은 지난팔월중순부터 계속하여 발생한 강도사건을 말하는것으로 이아홉건의 강도범인은 반다시 한범인까지의 수단방법이 흡가튼것으로보아 동일한범인으로 추측되여 한번만잡으면 전부해결될것이옴으로 양이나 밤을새위가면서 맹수사를하는 형사대의눈초리가 번적일뿐 아직까지체포치못하고 잘 파진평하고잇다

이때문에 사회에대한 면목문제도되므로 평남도보안과에서까지 응원수사를 하고잇는터이며 이십일오후에는 소(蘇)보안과장 이평양서에와서 호곡(戶谷)서장 복전(福田)사법주임등과 밤이 깁도록 수사에대한 협의를하엿다

小作農民을울리는 斤量制를撤廢 容量制를實行

金澤均 金鍾善外 數氏의率先斷行으로

郡內諸地主도追從形勢

【求禮】종래 각종재해로 도작수확이 격감되고 벼의중량은례년산에비하야 현저하게줄어잇슴도불구하고 횡포한지주들은 무리하게도 천편일률적으로 소작지의 토질과 종자며 작황여를 불문에 부치고 근량제(斤量制)를 강요하야 억울한소작인들은 이에견될수업서서 원성이 창천하야 추수후의 농촌정형이 가일층불상을일우는 이지음 전남구례지방에 당지의대지주김택균(金澤均)씨는 두량제(斗量制)인 실제중량을 표준으로징수하기로 용단하엿는데 이에계속하야 경성에잇는 김종선(金鍾善) 안재영(安在英)제씨며 화엄사(華嚴寺)와 천은사(泉隱寺)에서는 솔선하야 재지농민의참상을 참작하야 두량제(斗量制)를 표준으로 징수하게되매 따라 전군내각지주의자각과 반성은물론 일반소작인들의자각을 촉진하게되는데 군소작위원회당국에서는 동군경찰서와려력협력하야 가일무조건적근량제중수를 단연배제하고 농지령(農地令)의권능과 권의를 유루업시발동하야 소작료징수문제에 수반되는가진폐단의시정은 물론 눈어두운농민들을괴회로 도량형사용을 부정히하는무리와 법외로 석당일배밀집이근을 밧는것을 발견할시는 여하한경우를 불복하고 단호엄정한처분을하기위하야 철저한감시를 불래하리라고한다

市街移轉運動 都計의目標下에

【豊基】중앙선(中央線)이 경북을 통과함에 령하(嶺下)의 초도지인 풍긔시(豊基市)는 과거몃해동안 시가지가 별로히업고 다만 이등도로의 가운데에서 수만호 군중이 정주하든바 당지번영회에서는 이래 시가번영에 고심중 요지음와서 지방유지와의 악수로 도시계획을답안하야 우시장북편(牛市場北便)에 부지만여평을 매축하야 시가를 이전키로 벌서 만반의수속을 진행하엿다는데 불원간그실현을 보리라하야 일반의 긔대는 매우크다한다

電話架設코저 陳情委員上途

【平康】평강읍에서는 한구역내에잇는 복계리와십리나 떠러저잇스나 아즉도 전화가업서서이곳주민은 심히불안을 늣기고잇든바 지난십륙일에 평강시내전화가설긔성회에서 진정위원 전동섭(全東燮) 소림(小林)등 칠인이 상경하엿든바 체신국에서 호의로 실지조사위원을 보내기로되야 불원간전화가설이 실시될것을 긔대하고잇다한다

雜貨商專門窃盜 逐逮捕 十八件을自白

【平康】며칠전에 평강군서면주재소에서는 잡화행상인으로 행동이 수상한자를 인치취조한바 가지고잇는 잡화는 모두가 도적한것으로 판명되엿다 당자는 전과이범인 회천군상서면 봉오리류성태(柳成泰)(二七)라고하는데 그동안 평강본서에서 엄밀한취조를한결과자백한 범죄건수가십팔건이나 된다고하는데 경기강원 함남삼도를 도라다니며 주로 춘천양평 김화 철원 평강 이천 안변 홍천 횡성 강릉군 등지로도라다니면서 행상인체하고각상점에서 교묘한 수단으로잡화등상품을 도적한것이라는데 아직도 여죄가 상당하리라고하는바 불원간 송국되리라한다

沙里院 經濟問題大講演會

▲時日 十一月二十二日午後七時
▲場所 沙里院共樂院
▲演題 景氣의將來
▲演士 本社主筆徐椿氏
◇主催 朝鮮日報社沙里院支局

性病 尿の病

病理療養書 (田)春の悅樂 無代進呈

腎臟 膀胱 尿道 淋疾 消渴 寢小便

◉誠に古い經驗 推奬された自療法の公開

尿病・性病に惱む人は先づ病氣の知識を知つて効能正しく信用された療法を選ぶことをお奬めする 罹病者は安心して治療せられよ 自宅で治る病理療養の文獻(八十數頁の圖解美本のこと)無料呈上 ハガキで申込次第發送

本部 自療堂泌尿部

軍手의副業

軍手製造家募集

말할것도업시軍手는季節업는實用品으로販路는世界的으로益益宏大하고前途洋洋한것으로製品은언제나잘팔리는데只今가리쓰기힘든能率업는舊式製造機로서는製品도需要를채울수가업고收入도적어서遺憾이다 그래서我社는굉장히能率이놉고도使用簡便한自動軍手製造機의專賣特許의大發明을完成하고 … 提供한다

申込所 京城府 … 本社 大阪市 … 軍手製造機工業組合

ヤナギ アンチフラミン

肺炎 肺尖カタル 新治療劑！

消炎・鎭痛・理想的新巴布劑

アンチフラミン「ヤナギ」

アンチフラミン「ヤナギ」는消炎・鎭痛・滲出液吸收・新陳代謝促進・充血及疼痛輕減・血壓降下・血液循環好轉・毒素排除等 作用의普及的機에依하야

肺炎・肺尖カタル・インフルエンザ
肋膜炎・關節炎等에適用해서鎭痛
消炎作用을奏하며優秀한治療的効果를呈함。

アンチフラミン「ヤナギ」는 從來使用의巴布劑에比하야 効果의迅速的確은勿論 皮膚呼吸을 妨害치안코 使用時 加熱或은 リント布使用等의煩弊無하며 副作用皆無 持續性이有하고 使用後處理簡便하며 用量極少量임으로 最經濟的인 諸特長을有함。

ANTIPHLAMINE WILLOW

全國有名藥房에서販賣 文獻請求即時送呈

アンチフラミン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包裝 20瓦 ¥0・60 60瓦 1・00 500瓦 4・50

生殖機能을强精케하며 不老長春케하는

トカピアン

老少를勿論하고늙지안는사람이 업다 人生一生에이서서 가장不幸하며、가장 슬픈일은 무엇일가? 一은 疲勞가곤、가슴이뛰는 二三十歲의 靑年時代에身體虛弱으로말미아마 社會에나가서 伸張할將來가치못하고 집에도라오면 夫婦生活의 衝突를 보게되는것이며、二는四十이넘어 五十台이되는 人生一大轉換期에 處하는사람들의 老衰現象을 맛보는 五十台사람의 쓸아린중이옵니다. 사람이 一二三十代靑春期에이서서나 또老年期에 드러가려고하는 五十代時代를 勿論하고 身體가 虛弱해지며 腦力과 精神이 衰해지는 原因으로말하면 모도다 體內의 홀몬(內分泌)의 減退로 起因하는것은 이제 새삼스러히 更論할바가아닙니다. 特別히 生殖腺홀몬은 사람의 體內에이서서 非常한作用을하는 것으로 이生殖腺홀몬이 減退되는날이면 陰萎、勃起不能、早漏 …

東京漢洋藥學研究所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丁目 振替東京三九三一五番

十一月二十一日부터 青春座公演第三回 日本名作劇場
❶沙翁 月給날 一幕二場
❷仙圭 자식을죽이기까지 一幕
❸ 아버지돌아오시네 一幕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光二一五四

十七日ヨリ六日間
佛グレエ・フィルム特作日本版 ロベル・ルヴィギャン アリ・ボール 主演 ▲ゴルゴタの丘
P・C・L特作 千葉早智子 大川平八郎 主演 ▲朝の並木路
東日・大每 ▲極○色 パラマウント ニュース漫畫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最新式冷暖房完備

若草映画劇場 電話本五二三四番

滿洲興業銀行設立

産業開發長期低資貸付目的

日滿合辦、資本金三千萬圓

滿洲國政府에서發表

【新京二十日發同盟】滿洲興業銀行設立에關하야 滿洲國政府는 二十日午後五時如左히發表하얏다。

第十一回日滿經濟共同委員會는二十六日關東軍司令部에서 開催되어 滿洲國政府로부터 諮問한 滿洲興業銀行設立要綱을 原案대로可決하고 滿洲의 各種産業開發에 必要한 長期低利의資金供給을 目的으로한 日滿合辦의 滿洲國特殊法人 滿洲興業銀行(資本金三千萬圓)을 設立키로決定하얏다

朝銀서半額出資

朝銀在滿支店讓渡

對滿事務局發表

【東京電話同盟】滿洲의 金融機關의整備에 關하야 日滿兩國政府에서 研究中이든바 새로이 滿洲興業銀行을 設하고 朝鮮銀行의 關東州內를 除한 在滿各店 滿洲銀行及 正隆銀行의 在滿各店의 營業全部를 買收키로 方針을 決定하고 協議를 進하얏는데 各方이모다 國家的 重要性을 諒解하고 圓滿히 解決하야 近間 그實現을 보게되엇슴으로 對滿事務局은 二十一日 如左히 發表하얏다

滿洲興業銀行은 資本金 滿幣三千萬圓、半額拂込(滿洲國政府及 朝鮮銀行에서 各半額引受)의 特殊銀行으로서 一般銀行業務外에 長期金融事業도 營爲하고 一般金融의 圓滑을 圖하는同時에 各種産業開發을 圖키爲하야 必要한 長期低利資金을 供給키를使命으로하고 그資金을 得키爲하야 拂込資本金의 十五倍까지 債券을 發行할 特權을 與하야 外國에서 債權을 發行할境遇에는 滿洲國政府가 元利金의 支拂을 保證할것이다

滿洲國 中央銀行과 本銀行과는 自然그使命을相異히하는 것임으로 兩行의 業務分野는 漸次이것을 調整하고 相互協力하야 各使命達成에 遺憾이 업기를 期하게되엇다 朝鮮銀行은 從來日本의 對滿經濟上 重要한役割을 하야왓스나 今回關東州內를除한 在滿支店을 本銀行에 讓渡하고 今後는 專혀 銀行으로서 協力하야 發展을 期하게되엇슴으로 滿洲國內에서는 朝鮮銀行券 發行은 廢止케되고 同國幣制統一의實을 擧할수잇게되엇다 本銀行은 大體十二月上旬設立되어 朝鮮銀行 滿洲銀行 正隆銀行으로부터 業務引繼를 受하고 開行은 來年一月初豫定이다 本銀行의 設立에 依하야 滿洲國의 金融機關은 統制强化되고 從來에 比하야 面目을 一新하게되는것은 滿洲國經濟發展에爲하야 慶賀에 不堪하는바이며 日本國政府에서도 本銀行으로하야곰 充分活動케하기爲하야 援助할 方針이다

▲首腦部人物

【東京電話同盟】滿洲國의 金融機關을 整備키 爲하야 近間新設될 滿洲興業銀行은 政府에서 二十一日閣議를거쳐 日滿首腦部의 人物을 內定하얏는데 同行首腦部의 人物은 如左하다

總裁(大藏省海外駐在財務官) 富田勇太郎

副總裁(朝銀副總裁) 松原純一

理事(朝銀理事) 松田 義(?)

(滿洲銀行常務) 高橋武夫

(日本興業銀行調査課長) 一色信一

資本利子稅創設

第三種所得稅에綜合課稅

所得稅一種稅率引下、二種은廢止

十二年度부터實施

總督府에서는 日本內地의稅制改革에追隨하야 直接稅中 日本內地、朝鮮共通의것은 當然改訂할方針을定하고 目下渡東中인大野政務總監、林財務局長이 大藏省側과 折衝中인데 大略如左히 稅制體形을 改正키로內定하얏다 卽第一種所得稅의 稅率을引下하고 第二種所得稅를廢止하며 第三種所得稅에 綜合課稅를하는外에 資本逃避를 防止키爲하야 資本利子稅를 創設키로되어 此等의改正에依하야 一千三百三十五萬圓의增收를보고잇다 所得稅更改는 資本利子稅創設外는 絶對로實施치안흘方針으로 그時期는 當初는 十三年度에 豫定하얏스나 日本內地、朝鮮連繫를 必要로하는見地에서 十二年度부터 實施케하기로 決定하얏다 그리고 政務總監歸任後 前記稅制改革大綱이 發表될모양이라한다

朝鮮內는適地適業

工業의地方分散化調査

過般의 産業調査會는 日本經濟圈內의 適地適業의 分布開發을 目標로 答申하엿는데 一方 總督府에서는 朝鮮內의 適地適業開發을 目標로 하는同時에 工業의 地方分散에 努力할方針인바 當初에 總督府當局의 意向은 工業의大都市 偏在를 避하는데잇섯스나 이點에 關해서는 調査會에서도 相當히 論議되어 朝鮮의 現狀으로보아 交通其他의關係로 工場의 都市集中은 不得已하다는 結論에 到達하엿다 그러나 適地適業의 見地로는 아직 地方化가 可能한工業에 關해서는 可及的速히 地方分散을 圖할必要를 認定하고 近近 關係官民及民間有識者로서 委員會를組織하야 이俱體案에 關하야 大要如左한 事項을 中心으로 調査立案을 急히 行하기로되엇다

一、地方工業化가 可能한工業과 可能한 地域及 이에 對하야 交通、動力其他施設을 할事項

一、農山漁村未開發原料의 活用에 依한 地方特殊工業의 開發方策

一、地方工業化와 農山漁村振興運動과의 關連事項

一、其他工業의 地方分散에 關하야 必要한事項

中央卸賣市場

豫算七十五萬圓

京城府中央卸賣市場開設에關한 委員會는 二十一日午後一時부터 開催最終의 審議를 終了하고來二十四日의 府會協議會에서 開設計畫의 諒解를 受하고 豫算編成에 着手할터인데 右豫算額은旣報와가티 約七十五萬圓이다 그리고 敷地約一萬坪中에 鐵道局用地約六千餘坪은 無償貸與를 受할터이오 殘餘三千餘坪의 民有地의 價格決定과同時에 直時土地買收에 着手할터로 萬若價格의 協議가 成立되지 안흘때는 土地收用令에 依하야 收容할豫定이라한다

西鮮電氣增資

西鮮電氣增資＝西鮮合同電氣(資本金一千萬圓、四百三十四萬圓拂込)는 來二十五日臨時總會에서 開城電氣合併及江界電氣買收에 對하야 株主의承認을求키로되엇는데 同社는이에依하야 百萬圓程度의增資를 하게될모양이다 開城電氣資本金은 百萬圓(五十萬圓拂込)江界電氣는 十五萬圓(十二萬圓拂込)이다

米移出不振

朝鮮凶作을反映!

◇…粟輸도조금減少

十一月中旬 米移出은 三十萬四千五百十一石으로 比前年同期五萬一千五百五十一石減이오 新米穀年度인 十一月上旬부터의 累計는 五十一萬七千二百五十一石으로 三萬五千八百三十九石의減인바로이는 朝鮮內凶作과 日本內地의 豐作에依한 移出不振의結果이며 粟輸入은 一萬七千百十九石으로서 比前年同期約七百石減이엇다

十一月中旬米及粟輸移出入高

米輸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 粟輸移入高 (單位石) [illegible]

備考 十月中正誤 [illegible]

米倉新米入庫

約五萬八千石

米倉各支店에 入庫될 新米는 旺盛해가는데 今月一日부터 二十日까지의 入庫高는 約五萬八千五百五十三石으로 昨年보다는 아직 幾分遲延된모양인바 其內容은如左하다 (單位石)

鎭南浦	三八、〇一八
海州	一、二八二
仁川	七、八三三
群山	一、八七三
木浦	九、五五七

米穀證券借換發行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十一月二十五日支拂期日의 米穀證券(第五十八回)七千三百萬圓은其中一千萬圓을 現金償還하고 殘額六千三百萬圓은 左記要綱대로 借替發行키로決定하얏다

一、證券名稱＝米穀證券(第五十九回)

一、發行額＝額面六千三百萬圓

一、割引利率＝日步六厘四分三

一、發行日＝昭和十一年十一月二十五日

一、支拂期日＝昭和十二年一月二十五日

一、發行方法＝日本銀行引受

十月中京城

商品、金融

朝銀本店調査

米 新穀期에 入하얏스나 正米市勢는 底入氣味로 變化가업고 三日、朝鮮米第一回收穫豫想高 一千九百九十四萬石(從來의 調査方法에 依하면 一五、五一六千石으로서 前年實收에 比하야 二、三五八千石減) 四日、日本內地 第一回收穫豫想高 六千七百八十四萬石(前年에 比하야 一割八分增收)라는 發表로 日本內地、朝鮮을 通한 需給은 大勢上 緩和되고 氣配는 軟調를 帶하얏스므로 上旬에 入하야 買氣가 傍觀되엇스나 浮動米의 品薄과 新米의 季節遲延으로 人氣轉換하야 多少引締되엇다 下旬은 朝鮮內各地가 平年作을不下하리라하나 在米薄으로 買氣配强하야 漸次引締되고 月末接近과 共히 氣配硬化하야 中旬의 低價에서 二圓內外騰貴되고 前途强弱氣迷에 越月되엇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illegible]

粟 滿洲豐作에 依한出廻低價를 豫想하얏스나 米價高刺戟에 買氣가 起하고 意外堅調이엇다 今年度朝鮮米凶作은 粟의需要增加를 豫想되엇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illegible]

大豆 滿洲產地는 豐作謳歌에 依하야 先低人氣이나 朝鮮產地는 凶作人氣 極端이品薄高의 뒤를이어 ……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illegible]

小麥 朝鮮麥割高로 製粉側은 一切沈默하고 取引은 至極閑散이엇다 價格은 外麥日本內地麥保合에 不拘코 稍然高를 示하야 月始보다 約五十錢高로 越月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illegible]

繭 夏秋繭은 南朝鮮地方의 減收와 北朝鮮地方의 豐作으로 前年과 大略同樣의 產繭을 본모양이다 共販에의 出廻는 中旬으로 終了되엇다 今年은 京城自由市場의 閉鎖에 依하야 共販取扱은 前年보다 增加될豫想이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illegible]

肥料 硫安은 現品取引이 全無하고 閑散에 終하얏다。先物에 對하야서도 重要肥料統制法案細則豫想으로 賣買雙方共히 氣乘치안코 市勢로서는 三區各聯關로 渡三圓二六錢唱으로 傍觀商狀이엇다

大豆粕도 取引이 全혀閑散이고 滿洲特產第二回收穫豫想은 前回에 比하야 三分減을報하얏스나 米價低와 對米粉碎粕의 輸入注文豫想에 依하야 混亂狀態이고 大波瀾을呈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illegible]

綿布、人絹 農繁期로 需要가 적으니 凶作의 關係가 잇서 例年에 比하야 賣行閑散이오 市勢는 漸高로 推移되엇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illegible]

金融 米穀資金其他季節的資金은 例年에 比하야 需要遲延의 感이잇고 아직 顯著한 取扱이업고 平穩推移이엇다。

府內組合銀行月末帳面末은 預金總額一二三〇、五一八千圓 貸出總額一八九、八七六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야 預金五十萬六千圓減 貸出九百七十一萬圓增加이엇다

重要商品界事情

綿絲市勢打診

米棉도 再次增收豫想이 發表되엇는데 棉花政策에 對해서도 再次統制方法이 講究될것으로 豫想되는바 다시昨今의 米紡의 活況은 各國棉의 增產豫想에 依한 一部輸出의 減退를 相殺하야 需給은 오히려 强氣的으로 經過하고잇는것가티 생각되며 一方日本內地綿絲市場은 當先二十圓以上의 逆鞘로 자못 强硬한 市勢를 繼續中인데이는 七、九月의 紡績의 減產後를바더 紡績及市中倉庫의 在荷는 極端하게 減少되고잇는데 對하야 北中國과 南洋等 全혀豫想外의 需要가 增大한結果 需給關係가 자못窮屈하기 때문인바 今月에들어서도 依然 荷廻不良으로 가령三十一萬棉의生產이잇더라도 現下의 需要는 充分히 이를消化할수 잇슬것이다 따라서 當限으로서도 아직 高價를남기고잇는지도모른다 그러나이以上의高價는 綿布도그以上으로 나오지 안흠으로 荷物이集中되지안는것도 아니오또 減產期에들어선것도아니므로 買方으로서도 荷物受渡보다는 高價利食方針을 取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期近보담 割低한 先物의 押目買가 得意의方針이아닐가고 보는모양이다

人絹大局樂觀

環境高에 煽揚되고잇기때문에 現物方面에서는 곳反動을 가올것가티 떠드나 市勢는 皮肉的으로 益益環境高를 謳歌하야왓다 如何튼 現物實行不振을 全然보지안코 環境高를 떠드는 것만큼 어떠한 素地가 되어 잇는것으로 볼수박게업다 이 環境高는 從來와 달라 눈에 보이지안는 大材料가 잇는點에 認識을새롭게할 必要가잇는同時에 또한 人絹에도 이것이 作用하고잇다고 보는것이 妥當할것이다 따라서 價位觀이나 理論만을 固執하지말고 押目買方針으로나아가는것이 唯一의 策이라고 一般은 보고잇는모양이다

生絲供給不足

一般은 今年生絲市勢를 적게 보고잇는모양인데 强氣側의主張으로서는 이는不可解라는것이다 卽 今年은 蠶生產이 減少된데다가 또 그적은繭이殘存하리만큼 供給이 制限되엇스므로 對內的 强味가잇고 게다가 夏蠶後半에잇서서는 歐洲는 인플레熱에 煽揚되고 米國은 好景氣가 再確認되어 작고만 사는데도 生絲는不足한 實情이다 그나마 製絲家는 太半賣盡하고 그需要에 應할수업게되다면 自然價格으로 調節할市勢가 나올것은 當然하다는것이다 이러케본다면 品不足에基한 恐慌市勢가 現出할는지도 알수업는일이다

月末商勢如何

軟派의 主張으로서는 日本電工目隱落을 契機로 株式界에 一……

經濟寸鐵

取引停止(十一月十八日)▲京城府新堂町二二四 日興精米所 李鍾殷▲京城府漢江通三一 栗田榮作▲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 日生證券二一六號室アジア證券株式會社支配人 岡田金藏

○朝鮮의 外의 大資本獨占事業의 贊聲을 紹介하면

○一期九百萬圓의利를 남기는 朝窒에서는 肥料販賣를 압두고 朝鮮內硫安供給을 獨占하자고 버티고

○大京城의 電氣瓦斯事業을 독차지하야 一割의高率配當을하는 京電은 一千萬圓增資計劃說

○朝窒의 硫安獨占은 相對가 農村大衆이고 京電은 大京城細民層이顧客

○朝窒의自社方針表示에 當局이 무어이라할지모르나 京電增資에는 當局이反對表明

○五六分의借入金으로로 넉넉한데 一割配當할增資가 웬소리냐고 當然當然한말

商況(卄一日)

株式 商品高로 好勢

前場强硬 今朝場에는 東新百四十二圓三十錢、鐘新二百二十五圓五十錢 日產八十三圓六十錢에 各各寄付하엿는데 權機休日을 압두고 積極行動을 避하는것가트면서도 市勢는 意外로强硬하야 東新百四十二圓八十錢으로 六十錢에 止場하얏고 伴하야 鐘新百八十一圓 朝取八十八圓四十錢 大新七十一圓五十錢 日產八十四圓丁에 頑强히 各各大高되엇고 後場은土曜로 例休이엇다

雜株反騰傾向

今朝에는 諸雜株도 比較的强調로서 大阪短期는 今朝當止價는 昨夕場止價에比하야 鐘新七十錢高 日產六十錢高 帝人二十錢高 日糖五十錢高 레온十錢高로 日魯、鋼管을除한 諸株가 一齊高이엇다 다만實物은 纖維的休日을압둔것만큼 氣配가不透明하야 不變商狀으로 日本新三七〇〇、日華紡一六五〇、東邦人纖三三七〇 人造毛一、一八〇 日本曹達三〇九〇 電工新二六五〇 日滿아루六七〇〇 日新一七〇〇 太平炭礦四二五〇 日本硝子七四〇等으로 거의不變이엇다

朝取配當問題

朝鮮取引所의 下期業績은 米豆部의 活況을主因으로서 二割三三分의 配當可能의 好績이나 이에對하야 總督府는 高率配當을不許하고 一割五六分에 止하자는 內意를가지고잇슴으로 配當問題는 俄然興味를 이르키는데 證券部取引員有力者로 組織하고잇는金曜會에서는 二十日夜會合하야 配當問題에關하야 懇談한結果 取引員組合으로서의 要望은 別問題로하고 業績에相當한 配當을하는것이 當然하다하야 各取引員個個로 高率增配를 取引所側에 要望키로되엇다 今後取引員或은株主의 此種要望은 去益熾烈할것으로 보이는데 이에對한 取引所當局의 裁定은 注目되는同時에 月末開催될 決算重役會와 定時總會는 相當한 波瀾이잇슬것이다

六感

株…賣叫하면 賣叫할사록 彈力性을 發揮하는것은 底入市勢의 特徵▲二、二六事件以後의 東新이야 말로 押目만 보이면 新高價로 躍騰▲그러면 年末市勢는 얼마나갈가? 强氣는 百五十八圓附近으로본다▲그러타면 아직도買餘地가 遼遠!▲亞細亞證券은取引停止를當하엿다니 자미업는 일

米…昨今의 步調는 刻一刻으로 漸新高價를 添하야各地共히 騰勢一途▲當限의渡米難도 主因인모양이나 諸物價高가 米價의低落을 容認치안는모양▲高物價政策을 樹立하는모든物價大勢를 唯一한 信條로하고 買點不言하는 田中貞의 方針이야말로 果然賢眺할수업는걸 ◆賣로 物價指數에依하여서는 賣方針을 維持할수업지마는 正米의事情이마치 如何히展開될지 注目處

今日財界 (卄一日)

◆米 [illegible]

◆株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年末金融의 不安도 漸次解消되는同時에 押目買가 出現하야 四分利債는 高價來이며 其他도따라 小高한 市勢가되어 ……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〇、七五▲一八▲第三五分一〇〇、一〇▲一回四分一〇一、〇八▲二回四分一〇一、〇八 …… [illegible]

期米 押目買로上進

前場强硬 昨後場阪地二十九圓四十八錢止와共히 二十七圓七十錢에 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四十四錢인四丁反落을 據하고도 二十七圓五十二錢인 反히一丁高로 寄付한後 …… 止場하얏다

後場採合 後場은 二十七圓六十三錢인 同價로 始場한後 三錢의 最高로 頑强히 場을止하얏다

保合裡에强硬

渡米難이主因?

昨今의 各地市勢는 이러타할 强材料를 勝給하지안코 步調가 자못 堅實하야 日復日 高價를 示함은 阪地와 如한 大市場에서도 當限渡米의 蒐集에 完備되지못하야 아즉도 買方에게 有利하편이며 當地의 事情으로본다할지라도 買方으로서 受米를 決意한 主力도 업거니와 賣方도 또한 渡米를 整備하지못하고잇스므로 市中은 當必稱渡米難의 說을 主唱하고잇다 實로 當地正米市場의 事情으로보면 今後 三、四日以內에 渡米의 完備로 各月의 反對現象을 招來할지는모르나 아즉은 何等의 表徵이업다 當地는 正相

堂島前場賣買

堂島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 地場弱氣 寶濟側 朝鮮側

買方 地場强氣 株式側 中東側

各地正米

京城不變 定期는 纖纖高나 當用買不振으로 市勢는 前日과 大差가업다 ㊀三等二八、五〇 四等二八、二〇 一等白米三三、五〇

仁川保合 依然한 賣行不振에 期米의 好調를 보고 買方은 比較的冷靜하다 一方産地의 賣儘儘에 新規賣買는 漸減傾向을 밟고잇다 ㊀三等二八、五〇 四等二八、二〇 二等白米 一二、〇五

大邱堅調 價位不變에서 實地로부터 實需補모양이오 豫하야 定期의堅調를보고 實物이一般으로적어 市況平穩하다 ㊀三等二八、〇五 四等 二七、七五 一等白米一一一

群山少弛 地方出廻가 그다지 만치못하나 休日을압두고 産地의 賣氣가 엿보이나 依然 實需로서는 안는다 今朝十七輛이잇서 一圓의 休日高

木浦續高 定期高나 日本內地로부터 買注文이업서 實買는 …… 等白米 一二、三〇

釜山反落 定期好調에 纖纖하나 定期는 …… 實需取引은 低價는 實需……

三期仕手關係

先限은地場賣

當地三期의 仕手는 依合하면 當限은 五對七의 上宿下長으로 兩方共히 이러타할만한 主力側이 없어 全혀 小口側의 小競合에 不過하나 買方이 多數이나 當月의 當限이 三千圓九十九錢인 一等百八十丁의 賣方의 當限도 先限渡米의 爲로 …… 實物의 관계는 鏡刷하는것도 事實인데 아프로 納會期日이 迫한今日에잇서서 兩方의 態度如何가 가장注目되는 七對五의 上長下短으로 金太店을 本營으로한 二萬八、九千石의 買物이가장注目을 要하는바이오 先限의 取組는 五對七의 上短下長으로金太店의 一千七百餘石의 賣物이도한 注目을끄는바로서 來客買地場筋의 光景을 보고잇다 要하면 仕手의 關係로 各限의 事情이서로달으나 그러나 大體는 正米의實勢如何와 渡米의 蒐集如何에 莫大한關係가잇슴으로 兩方共히 輕入的行動을 取하지못하고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市況表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鑛油沖價 [illegible]

◆鋼粕沖價 [illegible]

◆日本寶物市勢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概算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爪哇砂糖 [illegible]

◆外玉期糸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金益證券 株 米 京城 仁川 金益商店

米 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仁川 期米 仁 仁川海岸町 谷川取引店